



제1장

개요 및 역사

1. 지리적 특성
손 일 · 구동회(부산대학교)

2. 역사와 문화
이준선(관동대학교)

3. 일반적 현황과 성격
이준선(관동대학교)

제1장 개요 및 역사

1. 지리적 특성

1) 개관

강원도는 우리나라 중부지방의 동반부를 차지하여, 중서부의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와 같이 우리나라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등줄을 이루는 태백산맥의 본맥과 크고 작은 지맥에 달린 산들로 이루어진 산지의 고장이다. 그래서 예로부터 태백준령의 동쪽을 영동, 서쪽을 영서라 부른다.

전체적인 윤곽이 북서~남동방향의 평행사변형처럼 생긴 이 지방은 동쪽으로 무려 212.3km에 달하는 활대 모양의 길고 단조로운 해안선을 따라 동해와 접하고 있고, 남쪽으로 소백산맥을 경계로 하여 경상북도와 이웃하고 있으며, 서남쪽으로 충청북도와, 서쪽으로 경기도와, 서북쪽으로 황해도와 접하고 있다.

강원도는 철원군을 중심으로 동쪽에 있는 지역이라는 의미에서 관동지방으로 불려왔다. 관동지방은 동해안을 따라 북쪽으로는 관북지방과, 남쪽으로는 영남지방, 서쪽으로는 한강을 따라 기호지방과 연결되어, 오랫동안 문화지역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관동 지방은 동해안의 좁고 긴 해안평야, 북한강, 남한강 유역의 작은 침식 분지,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한 400m 이상의 산지 등 다양한 자연조건에 의하여 여러 개의 작은 문화지역으로 구분된다.

문화 환경에 따라 강원도는 5개 지역, 즉 속초를 중심으로 하는 영동 북부 지역, 강릉을 중심으로 하는 영동 남부 지역, 철원을 중심으로 하는 영서 북부 지역, 춘천을 중심으로 하는 영서 중부 지역, 원주를 중심으로 하는 영서 남부 지역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러한 5개의 하위 문화지역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관동이라는 하나의 문화지역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강원도의 주요 산업은 임업, 수산가공업 등의 1차 산업과 광업으로 대표되는 2차 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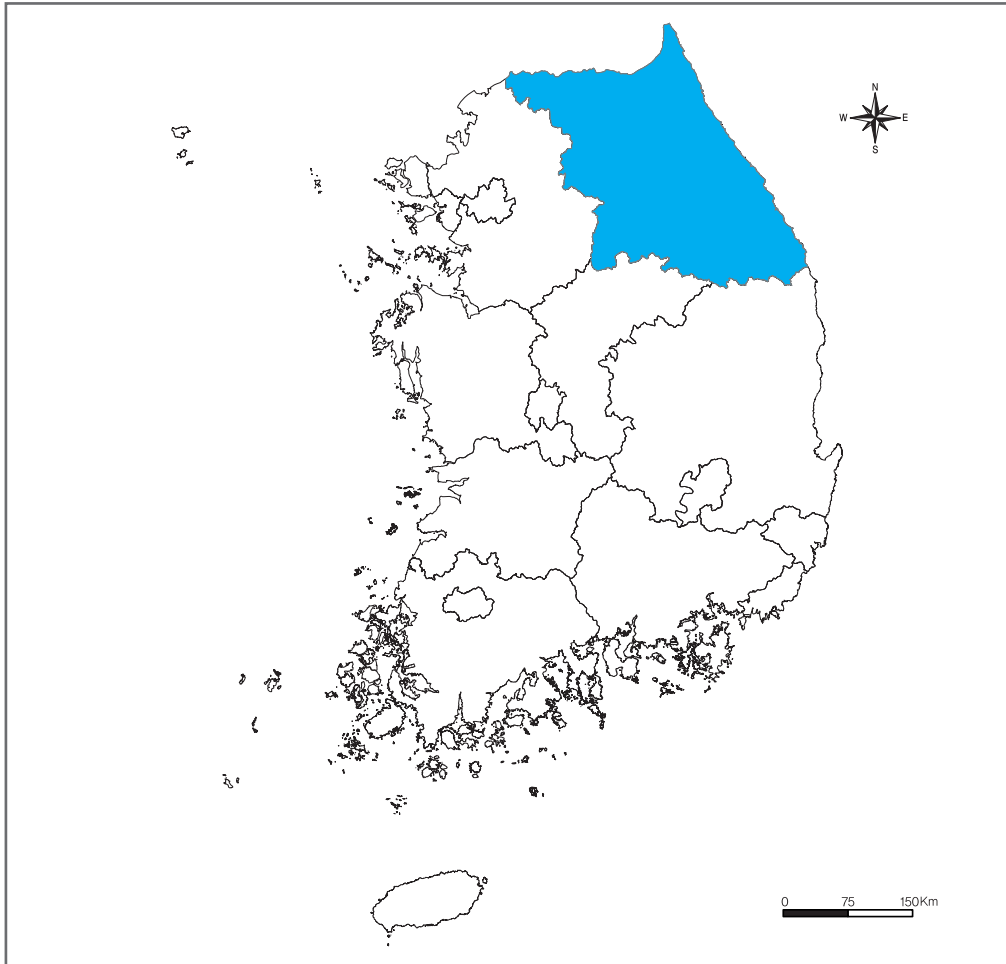
업이 주종을 이루었다. 태백·삼척·강릉·정선·영월에 걸친 태백산 지역은 남한 제일의 광업지역으로 발전하여 광업종사자수와 광산물생산량에 있어 전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왔다. 하지만 채광 여건의 악화와 석탄 수요의 감소로 인해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이 시행된 이래 관광·스포츠·레저 등 3차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즉, 태백시 등 폐광지역에서는 관광산업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태백산맥의 설악산·오대산·치악산 등에는 국립공원과 자연휴양림이 다수 분포하고 있다. 또한 동해안을 따라서는 관동8경의 경승지와 해수욕장 등이 있고, 동해안의 해로를 따라 북한의 금강산 관광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강원도 지역 경제에 있어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강원도는 태백산맥이 동서로 자리하고 있어 지세가 험하고, 국토분단으로 인해 개발여건이 불리하다. 하지만 향후 남북교류 및 북방교역의 증대와 교통망의 획기적 확충으로 인한 국내·외 지역과의 접근성 개선으로 인해 위치적 제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그리고 환경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패러다임의 변화, 동북아 경제권의 급부상, 환 동해권의 활발한 움직임 등의 여건 변화로 강원도는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위치와 영역

강원도는 동경 127° 05' ~ 129° 22', 북위 37° 02' ~ 39° 37' 에 걸쳐 있고, 북쪽은 함경남도와 황해도, 서쪽은 황해도와 경기도 등과 접하지만, 국토의 분단으로 지금은 182km의 휴전선이 실질적인 경계가 되고 있으며, 남쪽은 충청북도와 경상북도, 동쪽은 동해에 면하고 있다. 위치상으로 북단은 통천군 학삼면 합진리, 서단은 이천군 낙양면 지하리지만, 휴전선으로 인하여 현재 북단은 고성군 현내면 송현리, 남단은 영월군 하동면 내리, 서단은 철원군 철원읍 대마리, 동단은 삼척군 원덕읍 월삼리이다(〈그림 1-1〉 참조), (표 1-1 참조).

강원도는 남북 길이 243km, 동서 길이 150km, 총면적 26,263km²(군사분계선이남 16,898.1 km²)로서 전국토의 약 12%에 이르러 함경북도와 평안북도에 이어 세 번째로 크다. 하지만 이 가운데 전체 면적의 삼분의 일쯤에 해당하는 9,369km²가 미 수복 지역으로서 군사 분계선 북쪽으로 잘려나가 있다. 군사분계선 이남의 강원도는 경상북도 다음으로 넓고, 그 면적이 남한 총면적 99,765km²의 16.9%에 해당하는 광활한 지역이다.



<그림 1-1> 강원도의 위치

자료 : 한국토지공사 강원지사, 1997, 강원도 땅이름, 한국토지공사.

[표 1-1] 강원도의 경위도상의 극지점

구분	극지점	극점 위치
동단	삼척군 원덕읍 월삼리	동경(E) 129° 22'
서단	철원군 철원읍 대마리	동경(E) 127° 05'
남단	영월군 하동면 내리	북위(N) 37° 02'
북단	고성군 현내면 송현리	북위(N) 38° 37'

자료 : 한국토지공사 강원지사, 1997, 강원도 땅이름, 한국토지공사.

강원도는 산지가 많아 토지의 대부분이 임야로 이용되고 있다. 전체 면적 가운데 임야가 81.6%(13,782km²), 농경지가 8.4%(1,725.6km²), 기타가 10%를 차지하고 있다. 경지면적의 경우, 논이 653km²(47%), 밭이 746.4km²(53%)이며 농가 호당 경지면적은 1.4ha이다. 인구는 152.1만(2005년 기준)으로 남한 인구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밀도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90인/km²으로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그 원인은 100m 이하의 저지대가 강원도 총면적의 5.6%에 불과할 만큼 강원도의 지세가 험하고, 따라서 생업이 불리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강원도는 지정학적으로 한반도의 중앙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역사적으로 늘 국토의 변방으로 인식되어 왔다.

강원도는 북쪽은 함경남도의 안변, 덕원의 양군 및 황해도의 곡산군, 서쪽은 황해도의 신계, 김천의 양군 및 경기도의 연천, 포천, 가평, 양평 및 여주 등과 접해 있다. 남쪽은 충청북도의 제천, 증원, 단양군 등과 경상북도의 울진, 영주 및 봉화 등의 제군과 접하여 5도 3시 13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현재 남북의 분단선인 휴전선은 고성군 현내면(북위 38° 45′) 근처에서 서남하하여 가칠봉, 방산면, 금화읍, 철원읍 등의 북방을 연결하는 선으로 강원도 내 통과 길이는 약 182km에 이른다. 강원도 내 현 군사분계선 이북 미수복 지구는 9개 군으로 전 지역 미수복 군은 통천군, 회양군, 평강군, 이천군, 김화군이고, 일부 지역 미수복 군은 철원군, 양구군, 고성군, 인제군이다.

강원도는 태백산맥의 정상부인 철령(685m), 진부령(520m), 미시령(767m), 한계령(917m), 대관령(832m), 백봉령(833m) 등의 험준한 고개를 기준으로 영동지방과 영서지방으로 구분된다. 영동지방은 강릉·동해·삼척·태백·속초의 5개 시와 양양·고성 군 등을 포함하는 지역으로서 태백시만 낙동강 유역에 자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시·군은 해안지대에 집중되어 있다. 영동 지방은 강릉시를 중심으로 다시 북부, 남부 지방으로 구분되고, 영서 지방은 북부, 중부, 남부 지방으로 구분된다.

영동 북부 지방은 1975년 영동고속도로, 1981년 양양-인제 간 한계령(920m) 도로, 1984년 간성-인제 간 진부령(520m) 도로, 1985년 간성-인제 간 미시령(767m) 도로가 잇달아 개통되거나 확장, 정비되어 서울과의 교통이 편리해졌다. 이에 따라 영동 북부 지방에는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을 중심으로 전통적인 산업인 수산업은 물론 관광업이 새로이 발달하

게 되었다. 속초시는 동해안의 큰 어항으로서 설악산을 끼고 있어 관광 기능을 겸한 수산업 도시이다. 양양군은 한때 국내 최대 철산으로 각광받은 양양철산이 있었던 곳으로 최근엔 관광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영동지방 최북단이 고성군은 화진포, 통일전망대, 알프스리조트 등의 관광자원으로 유명하다. 영동 지방의 관문인 강릉시는 옛날 예국(濊國)의 도읍지로 고대부터 영동지방의 중심지라는 위치를 고수하여 왔다. 예부터 대관령이 한강 유역에서 영동 지방으로 진입하는 유일한 통로였기 때문에 현재의 강릉시는 교통의 중심지로 발달하였다. 신라 경덕왕 때는 신라 9주 중의 하나인 명주의 치소가 있었고 조선시대에는 대도호부의 행정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남대천 하류 유역에 자리 잡은 강릉시는 기후가 온난하고 농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이 골고루 풍족해 영동 지방에서도 살기 좋은 고장으로 꼽혀 왔다. 강릉시가 관광도시로 급속하게 성장한 데에는 영동고속도로의 개통에 따라 수도권으로부터 관광객이 급증하였기 때문이다.

영동 남부 지방에 속하는 동해시와 삼척시는 태백산맥이 해안 가까이에 다가서 있어 경지율이 매우 낮은 대신 공업이 발달하였다. 동해시는 명주군의 묵호읍과 삼척군의 북평읍이 합쳐져서 시가 된 도시로 묵호항은 동해안의 큰 어항이다. 동해시는 일찍이 대규모의 시멘트 공장 및 금속, 기계, 화학, 식품 등의 공장들이 들어선 공업도시이다. 삼척시는 해방 이전부터 남한에서 유일하게 시멘트 공장이 들어선 곳으로 정라항을 중심으로 어유, 어분, 통조림 등의 수산 가공업이 발달했다. 태백시는 국내 최대의 탄광도시였던 곳으로 최근에는 관광·스포츠·레저 도시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영서 중·북부지방은 춘천시와 인제·양구·홍천·화천·철원군을 포함하는 지역으로 한탄강 유역의 철원을 제외하고는 전부 북한강 유역에 속해 있다. ‘호반의 도시’ 춘천은 북한강이 관류하는 지역으로 강원도 도청 소재지이다. 이 지역은 수도권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낙농, 양돈, 양계가 활발하다. 화천군은 군사적 성격이 강한 도시로 이 곳에 입지한 화천 수력발전소는 수복 후 남한의 전력생산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던 발전소이다. 철원지방 역시 수도권과의 교통이 편리한 지역으로 관광업이 발달했고 아울러 군사적 기능도 강한 지역이다. 인제·양구·홍천군은 험준한 산지에 자리 잡은 지역으로 배추, 무 등의 고랭지 농업이 발달했다. 이들 지역은 대체로 농경지가 협소하고 교통이 불편하며 군사요충지로서 군사도시의 성격을 띠고 있다.

영서 남부 지방은 원주시와 횡성·영월·정선·평창군을 포함하는 지역으로 남한강 유역에 속해 있다. 원주는 강릉과 함께 강원도를 대표하는 지역으로 일찍부터 교통의 요지로서 상업·서비스업 및 공업이 발달해왔으며 앞으로 중부내륙지방의 중추도시로 발전할 전망이다. 태백산 공업지역의 핵심이었던 영월과 정선은 '석탄산업합리화' 조치 이후 지역 경제가 침체에 놓였으나 폐광지역을 되살리기 위해 2003년 3월 강원 카지노를 설립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평창군은 서울에서 대관령을 넘어 영동지방으로 가는 주요 교통로 상에 입지해 있기 때문에 고랭지 농업과 4계절 휴양지로서 관광업이 발달해 있다.

강원도가 고대에는 예국과 맥국, 통일신라시대에는 명주와 삭주, 고려시대에는 동계와 교주도로 나뉘어져 있었던 점에서 알 수 있듯이, 강원도에서 영동과 영서의 차이는 그 역사적 뿌리가 깊다. 이러한 차이는 영동지방은 바다를, 영서지방은 강과 산을 바라보며 살아왔기 때문에 비롯된 것으로 여겨진다. 강원도는 지세가 험준하여 교통 및 개발 여건이 불리하고, 남·북 대치 상황으로 인해 군사적 성격이 강한 지역이다. 하지만 점차 교통망이 개선되고 있으며 남·북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관광업이 크게 발달함으로써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앞으로 강원도는 관광 허브 및 통일 한국의 중심으로 발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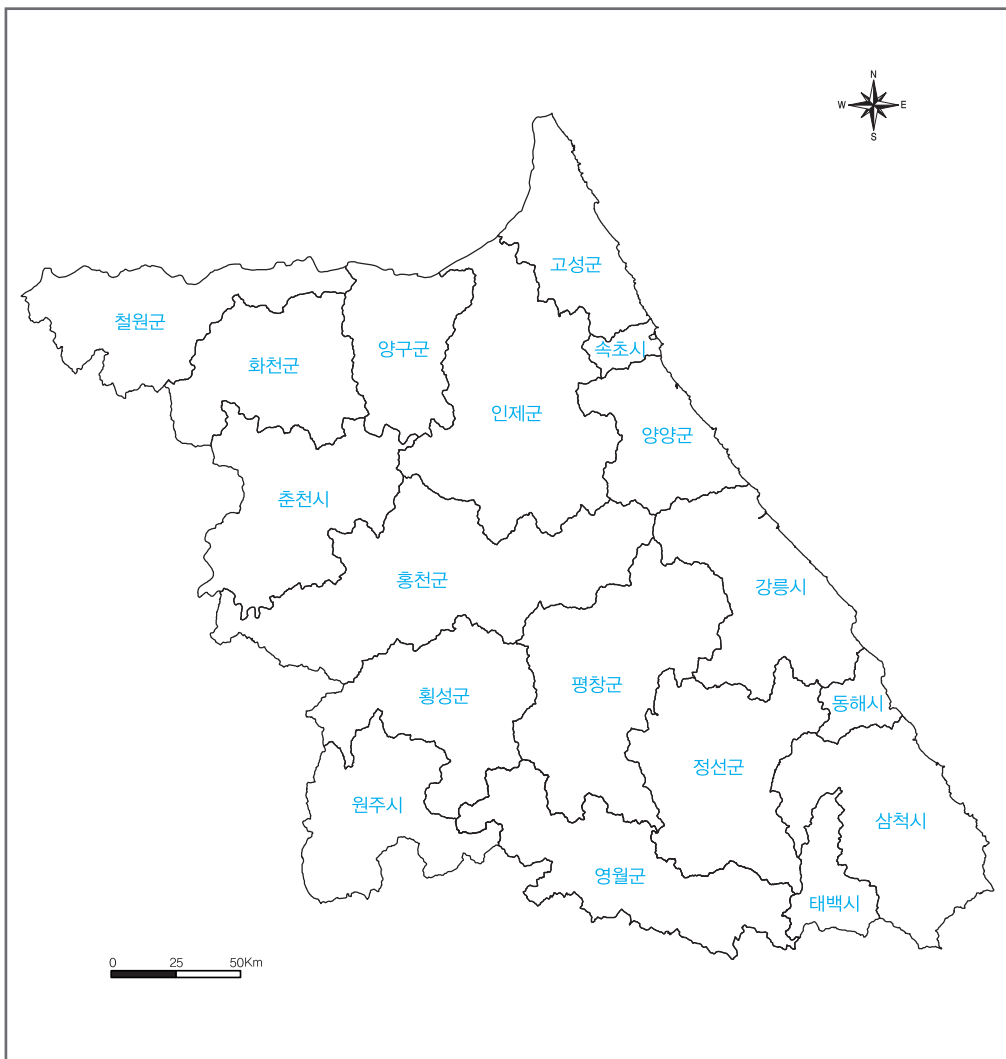
3) 지방행정체제

고대부터 강원도는 영동과 영서지방이 서로 다른 행정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그러다 조선 태조대에 이르러서야 오늘날과 같은 행정구역으로 병합되었으며 강원도(江原道)라는 지명이 유래된 것도 이 때이다.

1945년 8·15광복과 더불어 국토가 양분되면서 11군 82읍·면이 북한에, 1부 10군 91읍·면이 남한에 있게 되었고, 1954년 수복지구 임시 행정조직법 시행으로 완충선 이남인 철원·김화·고성·양양·인제·양구·화천 등 이북 지역인 7군 3읍 37면을 수복하였다.

1955년 강릉읍과 원주읍이 각각 시로 승격되었다. 1963년 속초읍이 시로 승격되었고, 김화군이 철원군에 통합되었다. 1980년 북평 산업기지 건설에 따라 명주군 묵호읍과 삼척군 북평읍이 통합되어 동해시가 설치되었고, 1981년 삼척군 장성읍과 황지읍이 통합되어 전국

최초의 광산도시인 태백시가 되었다. 1986년 삼척군 삼척읍이 삼척시로 승격되었고, 1995년 시·군 통합에 따라 관내 4개 시·군이 통합되었는데 춘천시와 춘천군이 춘천시로, 원주시와 원주군이 원주시로, 강릉시와 명주군이 강릉시로, 삼척시와 삼척군이 삼척시로 각각 통합되었다. 현재 강원도의 행정구역은 7시(춘천, 원주, 동해, 강릉, 속초, 태백, 삼척) 11군(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림 1-2〉 강원도의 행정구역

[표 1-2] 강원도의 행정구역 현황

행정구역	세부 행정구역	
속초시	동	영랑동, 동명동, 금호동, 교동, 노학동, 조양동, 청호동, 대포동
	읍	주문진읍
강릉시	면	성산면, 왕산면, 구정면, 강동면, 옥계면, 사천면, 연곡면
	동	홍제동, 중앙동, 옥천동, 교 1 · 2동, 포남 1 · 2동, 초당동, 송정동, 내곡동, 강남동, 성덕동, 경포동
동해시	동	천곡동, 송정동, 북삼동, 부곡동, 동호동, 발한동, 묵호동, 북평동, 망상동, 삼화동
	읍	도계읍, 원덕읍
삼척시	면	근덕면, 하장면, 노곡면, 미로면, 가곡면, 신기면
	동	남양동, 성내동, 교동, 정라동
춘천시	읍	신북읍
	면	동면, 동산면, 신동면, 동내면, 남면, 남산면, 사북면, 북산면, 서면
원주시	동	소양동, 조운동, 교동, 근화동, 석사동, 강남동, 후평 1 · 2 · 3동, 효자 1 · 2 · 3동, 약사명동, 신사우동, 퇴계동
	읍	문막읍
태백시	면	호저면, 지정면, 부론면, 흥업면, 귀래면, 소초면, 판부면, 신림면
	동	중평동, 원인동, 개운동, 명륜동, 단구동, 일산동, 학성동, 단계동, 우산동, 태장동, 봉산동, 행구동, 무실동, 반곡동, 관설동, 가현동
태백시	동	황지동, 황연동, 삼수동, 상장동, 문곡소도동, 장성동, 구문소동, 철암동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자료 : 각 시·도 홈페이지.

영동 북부지방의 중심지인 속초시는 면적 105.25km², 인구가 87,124명인 도시로 과거에는 속초리에 속했던 지역이다. 일제 강점기에 들어와서 청초호를 항구로 개발함에 따라 인접한 속초리가 커지면서 성장하여 1937년에는 면사무소가 대포리에서 속초리로 옮겨졌고, 면의 명칭도 도천면에서 속초면으로 바뀌었다. 그 후 1942년 읍(邑)으로 승격되면서 속초읍은 1구에서 4구로 나뉘어졌고, 해방 후에는 피난민의 증가로 인구가 더욱 늘어 3구에서 5구, 4구에서 6구가 분리되었다. 1963년에는 시(市)로 승격되었으며 1998년 동과 통의 통·폐합으로 행정동이 13개 동에서 8개 동으로 조정되어 현재 8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강릉시는 전체 면적은 1,040km²이며 총인구는 229,869명으로 행정구역은 1읍 7면 13동 370통 145리 2,888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강릉시는 예부터 예맥 족이 살던 곳으로 고구려

미천왕 14년(313년)에는 고구려 땅이 되었다가 그 후 신라 진흥왕 11년(550년)에 신라의 영역으로 되었으며, 경덕왕 16년(757년)에 명주라 하였고, 고려 충렬왕 34년(1308년)에 강릉부로 개칭되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태조 4년(1395년)에 강원도로 개칭되었고, 고종 33년(1896년)에 강릉군으로 되어 21개 면을 관할하였다. 일제 강점기인 1931년에 강릉면이 강릉읍으로 승격되었으며,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인 1955년에 강릉읍, 성덕면, 경포면을 합하여 강릉시로 승격함과 동시에 강릉군을 명주군으로 개칭 분리하였다가, 1995년 1월 1일 강릉시, 명주군을 통합하여 통합 강릉시로 개칭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영서 북부지방의 철원군은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해방과 동시에 공산치하에 들어갔다가 한국전쟁이후 국군의 북진에 따라 일부 지역이 수복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지역으로 행정구역은 4읍 3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지역은 1995년에 65,000여 명으로 최대였던 인구가 이농현상으로 점차 감소하여 현재는 51,000여 명에 그치고 있다.

춘천시는 영서 중부지방의 중심지로 현 강원도청 소재지이다. 춘천시는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1,116.35km² 이고 인구는 256,454명이다. 행정구역은 1읍 9면 15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춘천시는 1995년 1월 1일 경기도 남양주시 등 33개도·농 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774호(1994. 8. 3 공포)에 의하여 춘천시와 춘천군이 통합, 도·농 복합형태의 춘천시가 되어 현재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원주시는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하여 서남쪽에 자리 잡고 있는 도시로 인구는 290,073명이며 면적은 867.30km²이고 1읍 8면 16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지역 역시 1995년 1월 1일 법률 제4774호로 원주시와 원주군을 통합하여 오늘날의 원주시가 되었다.

4) 지명

강원도는 부족국가 시대에 예국, 맥국, 마한에 속해있던 땅으로 삼국시대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지배를 번갈아 받았다. 통일신라시대에 강원도는 춘천을 중심으로 한 영서 지방을 삭주로, 강릉을 중심으로 한 영동 지방을 명주라 칭했다. 그리고 고려시대에 이르러서도 강릉 지방을 동계라 하고 춘천, 원주 지방을 교주도라고 해서 영동 지방과 영서 지방을 구분했다. 조선시대에 이르러서야 이들을 합쳐서 강원도라고 불렀다. 강원도라는 지명은 주

요 산맥을 기준으로 해서 지역을 나누고 당시 이 지역의 목사가 있었던 강릉(江陵)과 원주(原州)의 앞 글자를 따서 강원도(江原道)라고 했다.

속초(束草)는 "뭍을 속(束)", "풀 초(草)"라는 한자를 사용하고 있다. 속초라는 지명에 대해서는 영금정과 관련되어 생겨난 지명이라는 설과 울산바위와 관련되어 생겨난 지명이라는 설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설 모두 속초라는 한자 지명의 뜻인 '풀을 묶은 것'에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문헌상에는 속새라는 풀이 많은 데서 유래된 지명이라고도 한다.

강릉(江陵)은 고구려시대에는 하서량(河西良) 또는 하슬라(何瑟羅)라고 불리었다. 그 후 신라 진흥왕 11년(550년)에 신라의 영역으로 되었으며, 경덕왕 16년(757년)에 명주(溟洲)라 하였고, 고려 충렬왕 34년(1308)때부터 지금의 강릉(江陵)이라는 지명이 사용되었다. 강릉이란 '강 강(江)' 과 '언덕 능(陵)', 즉, 강과 산이 많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철원(鐵原)은 918년 고려 태조 왕건이 고려를 세우고 옛 고구려시대의 지명을 계승한다는 이미지를 되살려 철원(鐵圓 : 철두루미, 털두루빙)이라 부르다가 충선왕 2년(1310) 지금의 철원(鐵原)으로 개칭하여 철원이 되었다고 한다.

춘천(春川)의 원래 지명은 소머리로서 쇠머리, 솟을뿔, 솟을묘라고 부르기도 했다. 백제에서는 이를 한자로 표기하여 우곡·우곡성·주양·주양성으로 불렀고 신라시대에는 이들 지역을 우수주(牛首州)라고 부르고 중부지역을 다스리는 군주(軍主)를 두었고 그 치소(治所)로 삼았다. 우수주는 문무왕 때 수약주(首若州)라 했고, 날아다니는 새와 관련된 이름인 오근내(烏根乃)·조근래(鳥根乃)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리고 통일 신라시대에는 삭주(朔州)라는 지명을 사용했으며 총관(總管), 혹은 도독(都督)을 지방관으로 두었는데 이 지역은 오늘날의 함경남도 남부, 경상북도 북부, 충청북도 북부를 총괄하는 행정·군사의 행정구역이었다. 그리고 고려 태조 23년(940) 이후에는 춘주(春州)라고 불려졌다. 오늘날에도 춘천을 춘주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이 때부터이고, 춘천의 대표적인 이름이 되었다. 조선 태종 13년(1413)에는 현재의 이름인 춘천으로 개편하여 군으로 하였다가, 동왕 15년(1415)에 춘천군은 도호부로 승격되었다. 지금의 춘천이라는 지명은 이때부터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다양하게 불린 삭주, 춘주, 춘천 등의 지명들은 머리·빛·봄·시작 등의 뜻을 생명과 연계해서 별칭으로 정한 것이다.

원주(原州)란 글자 그대로 지역이 개활(開闊)하고 넓은 벌판이라는 뜻이다. 이 지역은 백제

가 마한을 통일하였을 때에는 백제의 영토였고, 고구려 장수왕 57년(469)에는 남하정책으로 인해 고구려 영토에 편입되어 평원(平原)군이라 불렸다. 그리고 통일신라시대에는 북원(北原)경이라고 개칭되었으며 고려 시대에 이르러서야 지금의 원주라고 불렸다. 원주(原州), 평원(平原) 그리고 북원(北原) 모두 군사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별판이었음을 뜻한다. 즉, 이 지역은 사통팔달(四通八達)의 요충지로서 전쟁 시에 전략적으로 중요시된 곳임을 잘 나타내준다.

2. 역사와 문화

1) 강원권의 역사

(1) 선사문화의 전래와 성읍국가의 성립

농경의 개시와 토기의 사용을 특징으로 하는 신석기문화가 강원도에 유입된 것은 늦어도 기원전 5000년 무렵이다. 강원도에서는 영동지방의 양양~강릉 일대의 해안에 신석기시대의 유적들이 집중적으로 분포한다. 특히 양양군 손양면 오산리의 유적은 해안 사구에서 발굴되었는데, 우리 나라 신석기시대의 유적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임효재, 1999). 이 오산리 유적에서는 신석기시대 전기에 해당되는 융기문토기(隆起文土器)와 압문토기(押文土器)는 물론, 신석기시대 중기에 해당되는 빗살무늬토기(줄문토기)도 출토되었다. 그리하여 이 유적은 우리 나라 신석기시대의 상한을 끌어올린 중요한 유적으로 간주되고 있다.

또한 이 유적에서는 위와 같은 토기 외에도 흑요석이 출토되었는데, 이 유물은 백두산이 원산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위의 토기들은 가깝게는 함경북도 굴포리와 부산 동삼동에서, 멀게는 러시아 연해주나 중국 동북지방과 일본 서남부에서도 발견된다. 다만 오산리 유적의 압문토기는 문양이나 기형 등에서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어 ‘오산리형 평저토기’로 호칭되기도 한다(안승모, 1995).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강원 영동지방의 신석기문화는 연해주나 중국 동북

지방에서 동해안의 좁은 해안평야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소위 '동해안 통로'를 거쳐 일본 서남부로 이어지는 전과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동해안의 신석기문화의 전파 경로는, 영동지방이 지형적으로 서쪽 방향으로 폐쇄적인 반면에 남북 방향으로 개방적인 구조를 보이는 점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춘천시 교동의 봉의산 동쪽 사면에서는 신석기시대 후기의 것으로 보이는 빗살무늬 토기와 석촉 등이 출토되었다. 이렇듯이 영서지방에서는 주로 춘천 일대에 신석기시대 유적들이 하안을 따라서 분포하고 있다. 그러나 영동지방에 비해서 그 분포 밀도는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안승모, 1995). 이러한 춘천 일대의 영서지방 신석기문화는 계보상으로 서해안의 신석기문화와 함경북도의 신석기문화가 혼합된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신석기문화의 소유자들은 중국과는 다른 북방 계통의 인종으로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동을 해 온 것으로 알려진다(이기백, 2004). 이들은 구석기인과는 달리 끊이지 않고 계승되어 한국민족의 형성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며, 뒤이어 출현하는 청동기시대의 새로운 요소들과 결합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기원전 10세기 무렵부터 시작된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은 강릉시 연곡면 방내리와 속초시 조양동에서 발굴되었다. 이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 중에 무문토기와 지석묘 등의 분포상의 특징으로 볼 때, 강원도의 청동기문화는 동북쪽의 함경도로부터 동해안 통로를 따라서 영동지방으로 전파되었고, 이러한 흐름에서 갈라져 다시 영서지방으로도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백흥기, 1995).

그리고 기원전 4세기경부터 유입되기 시작한 철기문화의 전파는, 지금까지는 먼저 한반도 서북지방으로 들어와서 한강 하류를 거쳐 점차적으로 강원 영서지방으로 확산된 후, 다시 태백산지를 넘어서 영동지방에까지 이른 것으로 추정되어 왔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강릉시 초당동과 강동면 안인리, 춘천시 중도 등의 유적 발굴 결과를 토대로 철기문화도 함경도에서 남하하여 강원 영동지방으로 전파된 후에, 여기서 다시 영서지방으로 흘러들어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노혁진, 1995). 여하튼 이러한 주장은 철기문화의 경우에도 한반도 동북부의 함경도로부터 동해안 통로를 따라 강원도 영동지방, 그리고 다시 영서지방으로 확산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한 것으로 주목된다.

그러므로 신석기시대 이래 청동기시대와 철기시대 초기에 이르기까지 동해안 통로는 중국

동북지방이나 연해주에서 이어지는 한반도 동북부의 문화가 강원도 영동지방과 영서지방으로 전파되던 주요 경로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위에서 기술한 유적들과 관련된 당시의 주거지들은 신석기시대와 철기시대 초기의 경우에 대부분 하천변의 저지대나 해변과 접하는 호수, 즉 석호(lagoon) 주변의 사구에 위치하는 반면에, 청동기시대의 경우에는 낮은 구릉 위에 위치하고 있어 흥미롭다. 이와 같이 청동기시대의 주거지가 낮은 구릉 위에 위치하는 이유에 대해서 종래에는 단순히 농업의 발달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이에 대해서 이러한 주거지의 위치 변동이 청동기시대의 지리적 환경의 변화에 기인할 가능성도 검토되어야 한다는 언급이 있었을 뿐이다(백홍기, 1995).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부터 약 10000년 전부터 시작된 후빙기의 동해안 해수면 변동의 추이에 관한 연구 결과가 주목을 끈다.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한국 동해안의 해수면은 지금부터 10000년 전 이전부터 6000년 전까지 급상승하는 동안, 10000년 전 경에 -25m 내외, 7000년 전 경에 -10m 내외, 그리고 6000년 전 경에 대략 현 해수면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보이고, 이 상승속도는 연간 약 6mm가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조화룡, 2006). 그리고 6000년 전 경부터 미약한 상하운동을 하면서 현재의 해수면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수면의 미약한 변동은 5000~6000년 전 경의 고위해수면, 4000년 전 경의 해수면의 상대적 저하, 3000년 전 경의 해수면 상승 및 2300년 전 경의 작은 해수면 저하, 1800년 전 경의 미약한 해수면 상승 과정을 거쳐 왔다고 한다.

이와 같은 해수면의 상하운동 내용을 신석기시대 이래 주거지의 위치 변동과 연관시켜 보면, 기원전 5000년경에 시작된 신석기시대의 주거지와 기원전 4세기 경에 시작된 철기시대 초기의 주거지가 해수면이 낮아졌던 시기와 일치하는 점을 알 수가 있다. 지금부터 7000년 전 경과 2300년 전 경의 경우가 바로 그것으로서, 해수면이 낮은 시기에 주거지가 저지대에 위치한 사실이 확인되는 셈이다. 반면에 기원전 1000년경에 시작된 청동기시대의 주거지는 지금부터 3000년 전 경의 해수면 상승기를 맞아 상대적으로 고지대에 해당되는 낮은 구릉지에 위치하게 된 것으로 파악된다. 말하자면 지금부터 3000년 전 경의 해수면 상승기에는 해안의 저습지대가 소규모의 만이나 석호와 같은 환경으로 변화되면서 청동기인의 주거지도 따라서 구릉지대로 이동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같이 신석기시대를 거쳐 청동기시대에 이르러 권력을 상징하는 청동기와 지석묘 같은 유물과 유적의 출현과 관련해서 소규모 지역단위로 경제력과 권력을 소유한 정치적 지배자가 등장하면서 초기국가, 이른바 '성읍국가'가 성립되었다. 강원권에서는 강릉을 중심으로 하는 예국(濊國)과 춘천 일대의 맥국(貊國), 그리고 삼척 일대의 실직국(悉直國)이 대표적인 성읍국가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은 삼국시대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주요 거점 도시로 성장해 왔다.

(2) 삼국의 영역 확장과정과 강원권

삼국시대에 현재의 강원권을 먼저 점유하기 시작한 것은 소규모 지역단위로 형성된 성읍 국가들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비교적 일찍이 중앙집권국가 체제를 이룩한 고구려와 백제였다. 이 두 국가는 늦어도 4세기 경에는 강원권을 점유한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는 일찍이 태조왕 대에 동해안에 위치한 옥저와 동예를 복속시켰고, 미천왕 대에는 평안도와 황해도 일원에 설치되었던 낙랑군과 대방군을 축출하였다. 한편 백제는 근초고왕 대에 북으로 고구려의 평양성까지 공격하여 고국원왕을 전사하게 하였으며, 현재의 황해도와 강원도의 일부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하면, 강원도 영서지방은 대체로 백제의 영역에, 그리고 영동지방은 고구려의 영역에 속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4세기말 경부터는 고구려의 강력한 영토확장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서 강원권에서 점차 고구려의 영역이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광개토대왕 2년(392년)에는 백제의 북방 요새인 관미성이 함락되어 임진강과 한강 하구 일대가 고구려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 뒤를 이어 장수왕은 15년(427년)에 수도를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옮기면서 남진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63년(475년)에는 백제의 수도 한성을 함락시키고 개로왕을 살해하였다. 그리하여 고구려는 5세기 후반에 아산만과 동해안의 영토를 잇는 선까지 점유하게 되었다. 말하자면 장수왕대의 고구려 영토는 소백산지를 넘어선 것으로서, 강원권이 모두 고구려 영역으로 편입된 상황이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은 그리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고구려와 백제에 비하여 늦게 경상도 일대의 성읍국가들을 복속시키면서 중앙집권국가 체제를 정비한 신라가 6세기에 접어들면서 북진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

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과정에서 「삼국사기」지리지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강원권의 지명에 고구려적인 요소가 남아 있는 점은 고구려 문화의 전파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된다.

[표 1-3] 통일신라시대 9주5소경 체제에서의 강원권

(단위 : 개)

주명(주치)	소 경	군 명		현재위치	영현	비고
		신라	고구려			
삭주(춘천)	북원소경			춘천	3	홍천, 횡성, (경기)양평 포함
				원주		
		양록	양구	양구	3	
		낭천	생천	화천		
		기성	동기홀	김화	1	
		대양	대양관	회양 · 양구	2	
		연성	각연성	회양	3	
		익성	모성	금성		
		가평	근평	(경기)가평	1	
		삭정	비열홀	(함남)안변	5	
		정천	천정	(함남)덕원	3	
		나제	나토	(충북)제천	2	
		업산	금별산	(경북)풍기	1	
		나령		(경북)영주	2	
명주(강릉)				강릉	4	정선, 축제, 연곡, 양양 포함
		삼척		삼척	4	
		나성	나생	영월	3	
		수성	수성	간성	2	
		고성	달홀	고성	2	
		금양	휴양	통천	5	
		울진	우진야	(경북)울진	1	
		유린	우시	(경북)영해	1	
		야성	야시홀	(경북)영덕	2	
		곡성	굴화	(경북)임하	1	
2	1	9			25	

자료 : 삼국사기지리지와 한국지지(1984)를 토대로 작성.

6세기에 접어들면서 강원권은 점차 신라의 영역으로 편입되어 간다. 지증왕 6년(505년)에 군사거점인 실직주(삼척)를 설치하여 이사부를 군주로 파견하고, 같은 왕 13년(512년)에 하슬라주(강릉)로 군사거점을 이동하게 된다(방동인, 1995). 또한 진흥왕 17년(556년)에 비열홀주(안변)를 설치하여 성종을 군주로 삼고, 12년 뒤에는 다시 달홀주(고성)를 설치하나, 무열왕 때에는 다시 하슬라주(강릉)에 군주를 두기에 이른다. 바로 이러한 일련의 북진과정에서 함경도의 마운령과 황초령에 진흥왕의 순수비도 세워진 것이며, 강원권의 동해안 일대가 신라의 영토로 편입된 것이다. 한편 진흥왕 14년(553년)에는 신라가 동맹관계에 있던 백제를 축출하고, 한강 유역을 완전히 장악하게 됨으로써 강원권은 모두 신라의 영역으로 확정되었다. 그리하여 선덕왕 6년(637년)에는 우수주(춘천)를 설치하고 군주를 두게 되었다.

신라는 삼국을 통일한 후, 신문왕 5년(685년)에 확대된 영토를 통치하기 위하여 전국을 9주 5소경 체제로 개편하였다. 이 9주5소경 체제에 의거하여 강원권에는 삭주(춘천)와 명주(강릉), 그리고 그 하위 단위로서 복원소경(원주)과 군, 현들이 설치되었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표 1-3]과 같다.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삭주 관내에 복원소경(원주)과 12군 26현, 그리고 명주 관내에는 9군과 25현이 설치되었는데, 이와 같은 주, 군, 현들의 명칭은 경덕왕 16년(757년)에 모두 중국식으로 고쳐진 것이다(이기백, 이기동, 1982). 당시의 강원권은 오늘날과 상당히 다르게 나타난다. 현재 경상북도 북부 동해안에 속하는 울진, 영덕, 영해, 임하 일대는 명주의 관할 구역이었던 반면에, 경상북도 북부 내륙의 영주와 풍기, 충청도 북동부의 제천, 그리고 경기도 북동부의 가평 등은 삭주 관할 구역으로서, 모두 강원권에 편입되어 있었다. 이러한 주, 군의 분포 상황으로 볼 때, 대체로 삭주는 영서 고원지대에, 명주는 영동 해안지대에 해당되었던 셈이다. 그런데 영월, 평창, 정선은 동해안의 거점인 명주에 소속되어 있어서 명주의 관할구역은 태백산지를 넘어 내륙부에까지 미치고 있었는가 하면, 함경도 남부의 안변과 덕원은 동해안에 위치하면서도 삭주에 소속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삼국통일 전 고구려의 영토에 속했던 군현들 가운데 서부는 한주에, 동부는 삭주와 명주에 각각 편입된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강원도 북서부인 이천, 철원 등은 한주(광주)에 소속되었다. 그리하여 삭주와 명주의 관할구역은 대략 태백산지 일대를 동부와 서부로 양분하는 형태를 이루었다.

이와 같이 새로 정비된 주, 군, 현이나 소경의 통치자로는 모두 중앙의 귀족들이 임명되었

다(이기백, 이기동, 1982). 이러한 과정에서 중앙귀족들이 지방행정 중심지로 이주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왕경인 경주를 중심으로 하는 신라 문화가 구 고구려 영역으로 전파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강릉 김씨의 시조로 알려진 김주원(金周元) 가계의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김주원은 태종무열왕계로서 선덕왕이 죽은 뒤에 가장 유력한 왕위 계승후보였으나, 원성왕이 된 김경신과의 왕위 쟁탈전에서 실패하자, 곧바로 원성왕 원년(785년)에 명주로 낙향하였다(이귀대, 1995). 김주원의 명주 이주는 위와 같은 정치적 상황과 선대의 유정(惟正)이 명주에서 벼슬을 할 때, 명주 호족의 박씨와 결혼하였다는 점으로 볼 때, 명주에 기반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명주로 이주한 김주원은 원성왕으로부터 명주군왕(溟州郡王)에 봉해지고, 명주는 물론 북쪽의 익령(양양)에서부터 남쪽의 삼척, 울진, 평해에 이르기까지 동해안의 넓은 지역을 식읍으로 받았다(박한설, 1995). 그리하여 김주원은 명주를 중심으로 동해안 일대에서 거의 독립적인 지위를 유지하면서 강력한 호족 세력으로 성장해 간 것으로 보인다. 그 아들 김헌창이 헌덕왕 14년(822년)에 웅주(공주)를 거점으로 대규모 반란을 일으킨 사실이나, 그 손자 김범문이 다시 반란을 시도한 사실 등이 이를 말해준다. 김주원 가계가 명주로 낙향한 뒤에 거주해온 장소로 알려진 강릉시 성산면 금산리에는 작은 골짜기에 입지한 '장안동(長安洞)이라는 지명과, 이 마을 주위의 야산 능선부를 따라서 축조된 산성 등이 남아 있다. 이 산성은 명주성(溟州城)으로 전해지고 있다(이준선, 1982). 이러한 사실들은 신라 하대에 지방에서 장군이나 성주를 자칭하면서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하던 지방 호족들이 거주하던 장소의 전형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김주원 가계는 후삼국 시대를 거쳐 고려 건국과정에서도 왕<김>예(王<金>乂)와 왕<김>순식(王<金>順式) 경우처럼 왕건 세력에 협조하여 고려 초기 토성분정과정에서 명주지방의 유력한 토성으로 지정되었다(박한설, 1995).

또한 마찬가지로 신라 왕족 출신으로서 정권 투쟁에 희생되어 지방으로 몰려나 영월 세달사에서 승려생활을 했던 궁예는 복원(원주)의 지배자 양길의 부하가 되었다. 그 뒤에 그는 양길의 군사를 이끌고 원주의 동쪽에 위치한 영월, 평창, 정선 등 여러 군,현을 점령하고, 진성여왕 8년(894년)에는 강릉까지 세력을 뻗혔다(박한설, 1995). 강릉에서 이 지역 세력가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장군으로 추대된 궁예는, 양길의 휘하를 벗어나 독자적인 세력기반을 구축하고, 해안을 따라 북상하면서 여러 군,현을 점령한 뒤에, 태백산지를 넘어 영서

지방의 인제, 화천, 김화, 철원 등 10여 군현을 점령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군사를 모으게 된 궁예는 드디어 효공왕 5년(901년)에 송악(개성)을 근거로 자립하여, 고구려의 부흥을 구호 삼아 후고구려를 건국하였다(이기백, 2004). 그 후에 그는 국호를 마진(摩震)으로 고치고 도읍을 철원으로 옮기며, 또다시 국호를 태봉(泰封)으로 개칭하면서 정부 관제를 정비하는 동시에, 왕건 등의 부장들을 보내어 각지를 공략케 함으로써 당시 후삼국 판도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최대의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었다(박한설 1978). 그러나 그는 말년에 이르면서 폭군으로 전락하여 경명왕 2년(918년)에 부하들에 의하여 축출되었다. 이렇듯 궁예가 강원권을 토대로 지방 세력들을 흡수하면서 세력을 길러 후고구려를 건국한 사실이 주목된다.

이와 같이 삼국이 각각 영역을 확장해가는 과정에서 대략 6세기 중기까지는 일부 백제의 영역을 제외하면 강원권의 대부분을 고구려가 점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구려는 남진정책을 강화하면서 5세기 후반에는 강원권을 넘어서 경상북도 북부지방까지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진흥왕대인 6세기 중기 이후에는 신라가 북진하여 강원권을 장악하고 7세기 후반에 삼국 통일을 이루었다. 통일신라시대에 특히 동해안의 군사적, 행정적 거점인 명주는 태백산지를 넘어 내륙부인 영월, 평창, 정선 일대까지도 관할하고 있었다. 그리고 8세기 후반에 신라 왕족 출신인 김주원은 왕경인 경주에서 명주로 낙향하여 명주군왕에 봉해짐으로써 그의 가계는 강력한 호족으로 성장하여 영동지방의 대표적 동족집단인 강릉 김씨를 이루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신라 왕족 출신으로서 명주의 관할구역인 영월지방으로 몰려난 궁예는 9세기 말경에 명주 호족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독자적인 세력으로 성장하여 후고구려를 건국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신라의 삼국통일 이전에 북쪽의 고구려 문화가, 그 이후에는 남쪽의 신라 문화가 강원권에, 특히 명주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어 두 문화가 공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3) 고려시대의 강원권

고려시대에 들어와 성종 2년(983년)에 지방통치를 위하여 12목(牧)을 설치하고, 그 후 몇 차례의 개폐 과정을 거쳐서 현종 9년(1018년)에 5도(五道) 양계(兩界) 체제의 기본적 틀이

이루어졌다. 여기서 도는 일반적인 행정구역이지만, 계는 북방의 수비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경지대에 설치된 군사적 목적의 특수지역이었다. 그러므로 도의 장관으로는 안찰사(按察使)가, 계의 장관으로는 병마사(兵馬使)가 임명되어 그 임무에 차이가 있었다. 또한 도에는 군, 현이 설치되었으나, 계에는 원칙적으로 진(鎭)이 설치되는 점도 양자간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었다. 이외에도 도와 계의 하위단위로는 경(京), 도호부(都護府), 목(牧)이 설치되었다. 이와 같은 지방행정 단위에는 각기 목사, 지주군사, 진장, 현령 등의 외관이 파견되어 통치하였다.

이러한 5도 양계 체제에 의하면, 지금 강원권의 영서지방 북부는 교주도(交州道)에, 남부는 양광도(楊廣道)에 소속된 반면에, 영동지방은 동계(東界)에 소속되어 있었다. 그러한 행정구역의 영속관계는 [표 1-4]와 같다.

그 후 명종 8년(1170년)에 동계는 연해명주도, 원종 4년(1174년)에 강릉도, 충렬왕 16년(1290년)에는 강릉삭방도로 불리었다(최복규, 1984). 한편 교주도는 명종 8년에 춘주도, 그 후에는 동주도, 회양도 등으로 불렸다. 우왕 14년(1388년)에 영동과 영서를 합쳐 교주강릉도로 부르기도 하였다. 당시에는 지금 강원도에 속하는 이천, 철원은 경기도에 소속된 반면

[표 1-4] 고려시대 5도양계 체제에서의 강원권의 행정구역

도 · 계	속 주	속 군	속 현
교주도	교주(회양)	장양(통천)	남곡, 통구
		금성	기성, 화천
	춘주(춘천)	가평	기린, 인제
		낭천	횡천, 흥천, 문등, 방산, 서화, 양구, 조종
양광도	동주(철원)	김화	삭녕, 평강, 장주(연천), 승령, 이천, 안협, 동음
	총주목·원주	영월	주천
		제주	평창
동 계	안변도호부	명주(방어군)	우계, 정선, 연곡(속현3)
			진명, 금양(속현3)
			흡곡, 고성(속현2)
			간성(속현1), 익령(속현1)
			삼척, 울진

자료 : 고려사지리지와 강원도사(1984, 1995)를 토대로 작성.

에, 원주와 영월은 양광도에, 그리고 현재 경기도의 가평이나 경상북도의 울진은 교주강릉도에 속하였다. 또한 동계에 속해 있던 영동지방은 명주도, 혹은 강릉도로 개편되어 강릉에 주재하던 안찰사가 관장하였고, 교주도는 춘천에 있던 안찰사가 지배하였다.

고려의 수도가 개경으로 정해짐에 따라서 교통체계도 새로 정비된다. 성종 2년(983년)에 새로운 역로가 편성되는데, 이것은 전국에 분포된 약 520여개의 역을 22개의 구역으로 구분한 것이다(방동인, 1995). 22개의 역로는 수도인 개경을 핵심으로 하여 동서남북으로 전국에 걸쳐 연결되도록 조직된 것이다. 그 가운데 강원권에 이어지는 역로는 5개로서, 개경 동북방면의 도원도 21개 역 중에 13개역, 삭방도 42개 역 중에 10개역, 춘주도 24개역 중에 16개역, 평구도 30개 역중에 8개역, 명주도 28개 역중에 28개역이다. 이 5개 역로의 주요 경로는 다음과 같다.

- 도원도 : (개성 - 장단 - 마전) - 철원 - 김화 - 평강 - 금성 - 회양
- 삭방도 : (안변) - 흡곡 - 통천 - 고성 - 간성
- 춘주도 : (서울 - 양주 - 포천 - 가평) - 춘천 - 흥천 - 횡성
 춘천 - 양구 - 인제
 춘천 - 화천
- 평구도 : (서울 - 양근 - 지평 - 여주) - 원주 - 영월
 원주 - 평창
- 명주도 : 강릉 - 대관령 - 횡계 - 진부 - 대화 - 평창 - 횡성
 강릉 - 목계 - 고단 - 정선
 강릉 - 삼척 - 울진
 강릉 - 양양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원권의 역로는 거시적으로 춘천, 원주, 강릉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고, 철원과 함경도의 안변이 그에 버금가는 거점을 이루고 있다. 이 가운데 안변을 거점으로 하는 삭방도와 강릉을 거점으로 하는 명주도의 동해안 부분은 선사시대 이래 동해안을 남북으로 잇는 ‘동해안 통로’에 해당된다. 이 통로는 고려시대에 여진족과 몽고족 등 북방 민족이 침략해오는 경우에도 압록강을 건너 서북면을 따라서 내려오는 주공격로와는

별도로, 동북 방면에서 침공해오는 제2의 경로로 이용되었다(주채혁, 1995).

한편 고려시대에 지방 군현에서 거두어들이던 세곡을 연안의 해로나 내륙 수로를 이용해서 수도인 개경으로 운송하던 이른바 조운제가 운영되었다. 이와 관련해서 당시 12조창이 있었다고 하는데, 강원권에는 원주의 흥원창이 알려져 있다(『고려사』 권 제 79 식화지 조운). 흥원창에서는 배 21수인데 모두 평저선이며, 1척에 200석을 싣게 되어 있었다. 『고려사』 식화지 조운조에는 조운로의 기점을 이루는 포(浦)가 전국에 걸쳐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기록에서 양계에 해당되는 강원도와 함경도, 평안도는 조운로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것은 이 지역에서의 세곡이 개경으로 운송되지 않고, 현지에 남겨져 군수에 충당되고 있었기 때문이다(박한설, 1995).

(4) 조선시대~일제강점기의 강원권

① 8도체제이래 강원권의 영역과 지방행정조직

조선왕조에 들어서면서 지방행정체제는 8도체제로 재정비되었다. 대체로 태종 13년(1413년)경에 도의 명칭과 범위가 확정되었다(유재춘, 1995). 고려 말기에 강릉교주도라고 불리던 강원권이 강원도로 개칭된 것은 조선 초기 태조 4년(1395년)부터이다. 이처럼 강원도라는 명칭은 강릉과 원주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것이다. 그것은 당시 강릉이 정3품관인 대도호부사가 관할하는 대도호부였고, 원주도 역시 정3품관이 관할하던 목으로서 두 곳은 강원권의 중심지적인 지위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새로운 행정구역의 정비과정에서 정종 원년(1399년)에 원주의 속현인 영춘과, 충주의 소관인 영월이 ‘개 이빨처럼 들쭉날쭉하다’고 하여 서로 바꾸었고, 태종 13년(1413년)에는 가평과 조종을 경기도에 이속하였으며, 경기도 소속이었던 이천(伊川)현을 강원도에 이속하였다(원영환, 1995). 세종16년(1434년)에는 경기도에 속하였던 철원과 안협을 강원도에 이속하였다. 이와 같은 행정구역의 변화는 수도가 개경에서 한양으로 옮겨지고, 개경을 중심으로 하던 고려시대의 경기지역이 협소한 반면에, 조선시대의 경기도는 훨씬 넓은 범위에 걸쳐도록 조정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고려시대까지 상당한 수에 달했던 소규모의 속현들은 통폐합되어 상대적으로 넓은 군현들이 형성된 것이다. 그리하여 강원도는 남동쪽

끝부분의 해안에 위치한 울진과 평해를 제외하면 비로소 현재와 동일한 형태와 영역을 지니게 된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강원도에 인접한 경기도와 충청도의 경우에도 그 형태와 영역이 매우 큰 변화를 보이게 되었다

조선 전기 8도체제에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강원도의 행정구역과 그 조직은 [표 1-5]와 같다. 이 표에서는 평창과 정선이 원주의 관할구역으로 되어 있으나,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영동지방인 강릉의 관할구역으로 나타나 있다. 관찰사 소재지인 강원도 감영은 원주에 두어졌고, 관찰사 밑에 대도호부, 목, 도호부, 군, 현을 설치하여 각각 정3품에서 종6품에 이르는 관리들이 임명되었다. 표에서 보듯이 영동의 강릉과 영서의 원주가 각각 대도호부와 목으로 정3품 관리가, 그 아래 도호부에 종3품, 그리고 군에 종4품, 현에는 종5품과 종6품의 관리가 임명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도와 각 군현의 명칭은 물론, 등급까지도 반역사건이나 불효, 패륜 등 삼강오륜에 위배되는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수시로 변경되었다. 이것은 사건에 직접 관련된 개인 뿐만 아니라, 해당 군현에 대해서도 징계를 내리는 형태였는데, 보통 10년 정도의 기간이 지

[표 1-5] 조선시대 강원권의 행정구역과 조직

수령 행정구역	대도호부사 (정3품)	목사 (정3품)	도호부사 (종3품)	군수 (종4품)	현령 (종5품)	현감 (종6품)
영동	강릉		삼척 양양	평해 간성 고성 통천	울진 흡곡	
영서		원주	춘천 회양 철원	정선 영월 평창	금성	인제 횡성 홍천 양구 낭천 이천 평강 김화 안협

나면 원상으로 복구되었다. 예를 들면 현종 7년(1666년)에 강릉에서 처와 딸이 전염병에 걸린 아버지를 생매장한 사건이 발생하자 강릉이 현으로 강등되었고, 그에 따라서 강원도의 도명에서 강릉을 빼고 대신 양양의 첫글자를 따서 원양도로 개칭되었다가, 얼마 후에 강릉이 부로 복구되면서 다시 강원도로 불리었다. 영조 11년(1733년)에는 원주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원주목이 원성 현으로 강등되었고, 따라서 강원도 명칭에서 원자를 빼는 대신에 춘천의 첫글자를 넣어서 강춘도로 개칭하였다가 3년 후에 다시 복구된 적이 있다(손승철, 1995).

이와 같이 도의 명칭이나 군현 등급의 상승과 강등 같은 변화는 보였지만, 행정구역이나 그 조직은 거의 변화가 없이 1895년까지 지속되어 왔다. 1895년에 이른바 을미개혁에 의하여 부군제가 시행되면서 강원권의 경우, 강릉부에 영동의 9개의 군을 소속시키고, 춘천부에 영서의 13개 군을 둔 적이 있었다. 그러나 1년 뒤인 1896년에는 부군제가 폐지되고, 13도제가 시행되었다. 이때 경기도, 강원도, 황해도는 그대로 두고, 나머지 함경도, 평안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의 5개 도는 각기 남과 북으로 나누어 모두 13도로 획정하였다. 이때 강원도의 지방행정구역은 모두 군으로 통일되었다.

1914년에 소규모 군들의 통폐합으로 평해는 울진에, 금성은 김화에, 안협은 이천에, 고성은 간성에 병합되었고, 1919년에 간성군이 고성군으로 개칭되었다. 그리고 1945년 해방이 되면서 북위 38도선으로 강원권은 양분되었고, 1953년에 한국전쟁이 종료되어 고성군에서 철원군으로 이어지는 휴전선이 설정되었다. 마지막으로 1963년에는 울진군이 경상북도로 편입되고, 김화군은 철원군에 병합되어 현재와 같은 행정구역이 형성되었다.

② 인구 규모의 변천

15세기 전기의 내용이 실려 있는 「세종실록」지리지에 의하면, 각 군현 단위로 호수와 인구수가 기재되어 있는데, 강원권에는 1만 1,084호에 2만 9,009명이 거주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표 1-6 참조). 이러한 호구의 수치는 당시의 실제 상황을 정확하게 전해주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 호구 부분에는 “본조의 인구에 관한 법이 밝지 못하여, 문적에 적힌 것이 겨우 열의 한둘이 되므로, 나라에서 매양 바로잡으려 하나, 인심을 너무 잃게 되어 그럭저럭 이제까지 이르렀으므로, 각 고을의 인구수가 이렇게 되었고, 다른 도들도 모두 이렇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수치는 실제 인구수보다 크게 축

소된 것으로, 국가에 대한 각종의 역을 부담해야만 했던 정(丁)을 중심으로 해서 개략적으로 파악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 호구 자료는 각 군현간의 인구 규모의 비교라는 관점에서는 나름대로 활용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18세기 중기에 편찬된 「여지도서」에는 리(里)단위로 편호의 수와 남자 및 여자의 수를 구별하여 기록한 호구수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 수치는 진일보한 호구 통계로 간주된다. 그리고 1910년도의 호구 수는 앞의 두 자료보다 한층 더 실제에 가까운 자료로 여겨진다.

「세종실록」 지리지에 기재된 전국의 호구 수는 각각 22만 6,310호와, 70만 2,870명이므로, 강원권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기 4.1%와 4.9%에 불과하여 8도중에서 가장 규모가 작다. 이러한 호구 규모에서 강릉대도호부가 4,539명으로 가장 많으며, 원주목 3,513명, 삼척도호부 2,613명, 그리고 춘천도호부가 1,950명으로 많은 편이다. 그다음에는 통천-양양-울진-홍천-회양 순으로 나타난다. 양양과 회양은 도호부이나, 통천은 군이며, 울진과 홍천은 현으로 되어 있다. 이렇듯 강원권에서는 군현의 등급이 인구의 규모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나타난다.

「여지도서」에 의하면, 강원권의 호구 수는 8만 256호와 31만 3,402명이다([표 1-6] 참조). 당시 전국의 호구 수는 169만 710호와 696만 8,856명이므로, 강원권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4.1%와 4.9%로 전국에서 가장 작다. 군현 단위로 인구 규모를 보면, 전통적인 행정중심지에 해당되는 강릉이 3만 2,199명이고, 원주 1만 4,926명, 삼척 1만 8,152명, 춘천 1만 4,877명이다. 그러나 이천이 3만 9,671명, 평강 1만 6,644명, 철원 1만 5,570명, 회양 1만 5,400명 등으로 나타나 기존의 행정중심지에 비하여 강원권 북서부의 인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당시 이천, 철원, 회양은 부로, 평강은 현으로 되어 있었다.

또한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는 1910년의 자료에 의하면, 강원권의 호구 수는 16만 8,724호와 85만 110명이다([표 1-6] 참조). 당시 전국의 호구 수는 281만 3,925호와 1,383만 2,376명이므로, 강원권이 점유하는 비율은 5.9%와 6.1%이다. 앞의 두 시기에 비하여 호구수가 대략 20~30% 증가한 셈이지만, 아직도 8도 중에서 최하위에 해당된다. 군현별 인구 규모를 보면, 전통적 중심지 중에서 춘천이 5만 7,897명으로 가장 많고, 강릉 5만 69명, 원주 4만 6,208명, 삼척 4만 9,354명이다. 특히 전통적인 행정중심지 가운데 춘천이 인구 규모에서 처음으로 강릉, 원주, 삼척을 능가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1896년에 강원도 감영

이 원주에서 춘천으로 이동하여 행정적, 군사적 거점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외에 홍천이 5만 2,349명, 인제 4만 2,851명, 회양 4만 787명, 영월 4만 511명, 그리고 정선과 평창, 양구 등이 3만 명을 초과하여 강원권의 고원지대가 크게 증가하였다.

[표 1-6] 조선시대 강원권의 인구 변천

시기 군현	「세종실록」지리지		「여지도서」		1910년	
	호(戶)	구(口)	호(戶)	구(口)	호(戶)	구(口)
강릉	1354	4539	6814	32199	10600	50069
양양	982	1495	2240	8448	5444	28799
정선	203	459	1998	8010	6805	36510
평창	233	501	1403	3161	7362	36046
원주	1311	3513	5490	14926	9937	46208
영월	324	611	2340	9456	7591	40511
횡성	313	595	2778	6103	7944	38574
홍천	444	1211	3103	9315	10331	52349
회양	411	1078	3780	15400	7830	40787
금성	412	855	3191	12201	5786	29962
김화	181	517	2817	13012	4386	20953
평강	163	212	4515	16644	5920	28049
이천	333	582	4181	39671	7177	34965
삼척	581	2613	3975	18152	10155	49354
평해	247	911	2584	11622	3611	18517
울진	270	1483	3368	14436	5526	28890
춘천	1119	1950	5491	14877	11060	57897
낭천	264	750	2067	7118	4719	23519
양구	317	691	1863	6454	6591	33306
인제	197	398	1022	4400	7631	42851
간성	332	567	2191	11333	4048	21319
고성	421	1005	1937	6842	3045	15827
통천	344	1575	1957	8174	6242	30716
흡곡	219	675	555	2641		
(철원)	(351)	(770)	3715	15570	6452	30776
(안협)	(140)	(410)	1892	7258	2549	13356
계	11084	29009	80256	313,402	168,724	850,110

자료 : 통계청, 2005, 시도별 인구동태율.

한편 1940년의 자료에 따르면, 강원권의 인구는 151만 3,276명에 달했다(강원도지, 1940). 군단위로는 강릉이 10만 2,990명으로 가장 많고, 삼척 9만 248명, 춘천 8만 6,433명, 원주 7만 4,120명으로 1910년에 비하면, 춘천의 인구가 비교적 증가폭이 작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전통적 행정중심지 이외에 김화 9만 2,534명, 철원 8만 5,247명, 홍천 8만 5,401명, 회양 7만 4,729명, 또 이천, 평창, 인제가 7만 명 내외에 이르러, 강원권의 산간 분지나 고원지대의 인구가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철원과 평강, 김화는 각각 1914년과 1931년에 개통된 경원선과 금강산 철도가 통과하게 된 점도 인구증가의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③ 경지면적의 변천

「세종실록」 지리지에 의하면, 강원권의 경지면적은 6만 5,916결로 전국의 12.5%를 점한다(표 1-7 참조). 군현 단위로 보면, 원주목이 7,556결로 가장 넓고, 강릉 대도호부 5,766결, 춘천도호부 5,737결, 홍천현 5,579결, 회양도호부 4,586결의 순으로 나타난다. 또한 「여지도서」에는 강원권의 경지면적이 15,803결로 전국의 2%에 불과하다. 15세기에 비하여 18세기의 경지면적이 약 4분의 1로 줄어든 것은 수세의 대상이 되는 실제의 결수만을 기록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군현 단위로 경지면적을 보면, 원주목이 1,956결로 가장 넓으며, 춘천현 1,731결, 강릉부 1,440결, 철원부 862결, 삼척부 827결 순으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홍천과 춘천의 경우처럼 경지면적의 규모는 크지만, 군현의 등급은 현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군현에 대한 징계의 결과이다.

한편 1910년의 자료에는 강원권의 경지면적이 16만 7,466정(町)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국의 13도 중에서 9위에 해당되는 면적으로서, 전국의 5.8%를 차지한다. 여기서 사용된 면적의 단위인 정은 약 3,000평, 혹은 1ha에 해당된다. 군단위로 경지면적을 보면, 전통적으로 경지면적이 넓었던 강릉이나 원주, 삼척 등의 경우에 3,000~7,000정 정도로 작게 나타난다. 반면에 이천군은 2만 3,829정으로 최대이고, 안협 1만 3,746정, 회양 1만 2,917정, 춘천 1만 146정, 금성 9,613정 순으로 드러나며, 그밖에도 양구, 인제와 정선, 영월, 그리고 김화, 평강도 6,000~7,000정 정도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광복 전인 1940년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1914년에 주변의 소규모 군

들을 통폐합하는 방법으로 행해진 행정구역 개편의 영향이 부분적으로 있긴 하지만, 이천군은 6만 2,435정으로 최대이고, 김화, 철원, 회양도 2만 6,000정, 인제와 양구, 정선도 1만 3,000정을 초과하였다(강원도지, 1940). 반면에 오랜 기간 행정 중심지였던 강릉, 춘천, 원주, 삼척은 1만 2,000~1만 7,000결 정도에 불과하다.

[표 1-7] 조선시대 강원권 경지면적의 변천

시기 군현	「세종실록」지리지		「여지도서」		1910년	
	경지면적(結)	논(結)	경지면적(結)	논(結)	경지면적(町)	논(町)
강릉대도호부	5,766	2/6미만	1440	833	4177	3036
양양도호부	1,833	2/5이상	675	465	1861	1453
정선군	1,005	1결	238	1	6435	218
평창군	1,078	11결	180	0.5	3278	846
원주목	7,556	1/5이상	1956	366	7104	3280
영월군	1,463	8결	587	39	6067	1145
횡성현	2,737	1/10미만	774	338	5515	2651
홍천현	5,579	148결	410	4	8729	2848
회양도호부	4,586	7결	218	13	12917	615
금성현	3,938	12결	198	5	9613	450
김화현	3,288	143결	214	15	6121	1177
평강현	3,778	58결	465	17	7123	984
이천현	3,310	8결	539	9	23829	876
삼척도호부	1,998	1/8이상	827	153	3884	1606
평해군	940	1/2이상	696	362	1118	941
울진현	1,351	1/3	588	258	2309	1295
춘천도호부	5,737	1/10이상	1731	237	10146	2349
낭천현	1,884	49결	184	11	4435	1206
양구현	1,797	103결	221	17	6910	1468
인제현	1,233	14결	143	4	5672	1210
간성군	1,302	1/2이상	695	445	1944	1434
고성군	1,316	370결	615	250	2552	1361
통천군	1,810	1/4미만	416	143	4656	3009
흡곡현	623	1/30이상	102	32		
(철원도호)	4,343	1/4미만	862	132	7303	1437
(안협현)	1,422	6결	163	2	13746	889
계	71781		16665	3947	167,466	37794

주 : 철원과 안협은 조선 초기에 경기도 소속이었음. 1910년 : 조선총독부 통계연보임.

위와 같이 조선전기 이래의 인구 규모와 경지면적의 변천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조선후기부터 20세기 전기에 이르기까지 강원권의 내륙 산간 분지나 고원지대를 중심으로 특히 인구 규모와 경지면적이 크게 증가한 사실이 드러난다. 임진강 상류부에 해당되는 이천, 안협, 철원, 평강 일대와, 북한강 상류부인 회양, 금성, 인제, 양구 일원, 그리고 남한강 상류부인 영월, 정선, 평창 일대가 바로 그와 같은 경우이다. 말하자면 강원권의 상당한 부분이 조선후기 이래 인구증가와 더불어 경지면적의 확대가 진행되어 온 셈이다.

이러한 상황의 전개는 조선후기의 화전 관련 기사나 「택리지」의 기술 내용과 이어진다. 17세기 후반에 해당되는 현종 연간에 이르러 산지 사면을 따라 올라가는 화전(火田) 개척활동이 과도하게 진행되어 나라의 명산에까지 그 피해가 나타나자, 해서와 관동지방에서 이를 금지하는 조치가 내려졌다(김상호, 1973). 이것은 바로 강원권에서도 당시 평지에서는 더 이상 개간의 여지가 없기에, 산지 사면 쪽으로 개간 대상지가 옮겨지고 있는 사실을 말한다.

또한 이와 직결되는 내용이 「택리지」에 기술되어 있다.

“...나의 선친께서 계미년에 강릉의 원이 되어 가셨는데, 그때 내 나이가 열 넷이었고, 가마를 따라갔다. 운교에서 (강릉의) 서쪽 대관령에 이르도록 그 사이는 평지와 영을 막론하고 모든 길이 뺨뺨한 숲 속에 있었다. 무릇 나흘 동안 길을 가면서 쳐다보아도 하늘과 해를 볼 수 없었다. 그런데 수십 년 전부터 산과 들이 모두 개간되어 농사터가 되고, 마을이 서로 잇달아 산에는 한 치 굵기의 나무도 없다. 이를 미루어 보면, 다른 고을도 이와 같음을 알 수 있는 바, ...”(팔도총론 강원도).

여기서 운교는 현재 평창군 방림면 운교리에 있던 ‘운교역’을 말하는데, 이 곳은 조선시대 한양과 강릉을 잇는 간선도로에 해당된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운교에서 동쪽으로 대관령까지의 도로변 풍경을 묘사한 것으로, 도로변이 모두 뺨뺨한 숲으로 덮여 있었던 점과, 그 후 수십 년이 경과하면서 대규모 개간활동으로 인하여 풍경이 사뭇 다른 모습으로 변화된 점이다. 이중환이 1690년에 출생하여 18세기 중기에 「택리지」를 기술한 것으로 보아, 대략 18세기 전기에 관찰한 사실이라고 판단된다. 이는 18세기에 들어서 강원권 고원지대의 개간활동이 광범위하게 진행된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처럼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전기에 걸쳐서 강원권의 산간분지나 고원지대의 경지 개간이 널리 행해졌는데, 조선시대 이래 강원권의 인구 규모와 경지면적의 변천과정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드러난다. 먼저 이러한 내용은 18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인구 및 경지면적의 변천과정과 거의 합치되는 것이다. 15세기에 비하여 18세기 중기의 인구에서 특히 회양, 이천, 김화, 평강 등의 인구 증가가 두드러지고, 20세기 초에는 정선, 평창, 영월과 인제, 양구 등이 큰 인구 증가를 보였다. 경지면적에서도 18세기에 비해서 20세기 초에 위의 군들이 괄목할만한 증가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지역들의 인구와 경지면적의 증가 추세는 전통적인 행정중심지였던 강릉, 원주, 춘천, 삼척 등을 크게 앞지르는 것이다. 결국 강원권 북서부의 산간지대가 먼저 18세기 중기에, 그리고 뒤이어 20세기 초에는 중,남부의 고원지대가 큰 인구 증가 현상을 나타낸 것이다. 한편 경지면적에서는 두 지역이 모두 18세기를 전후하여 크게 확대되어 온 사실이 20세기 초의 자료에 기재된 것으로 파악된다.

④ 육로 및 수로 교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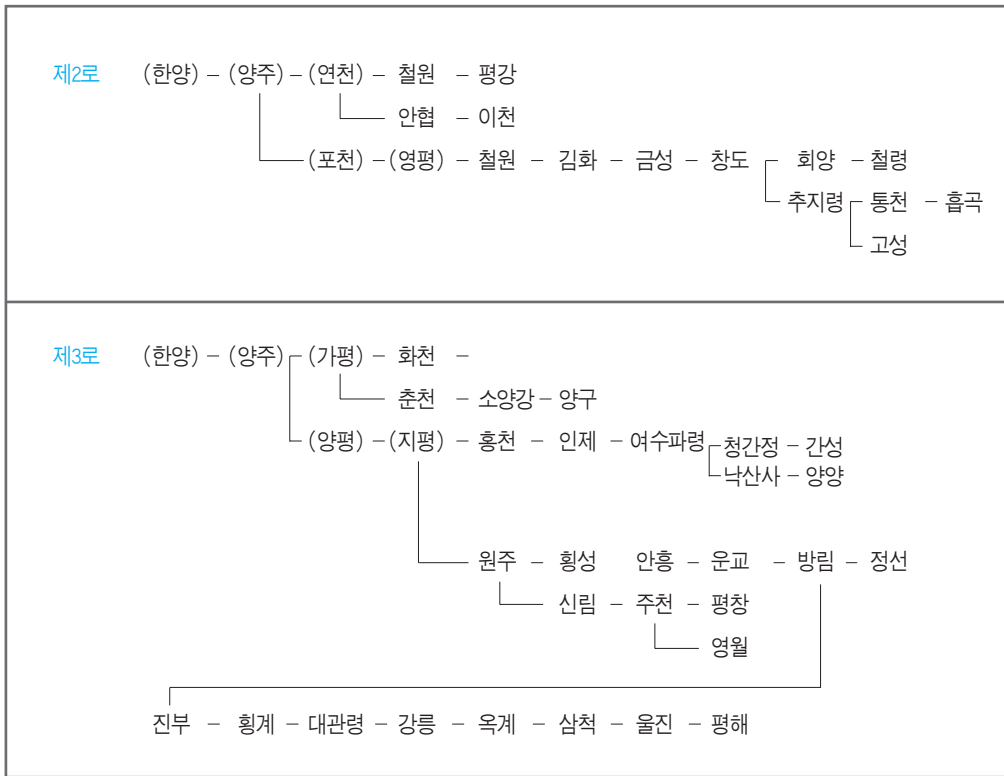
조선왕조의 수도가 개경에서 한양(서울)으로 이동함으로써 교통체계도 새로 개편된다. 육로인 역로의 경우, 초기에 강원권에는 보안도와 대창도, 평릉도의 3개 역로에 57개의 역이 소속되었으나, 세조 원년(1455년)에 이르러 보안도와 대창도를 합하여 대창도로 칭하고, 종6품인 찰방을 파견하였다(유재춘, 1995). 그 후 점차 역로가 정비되어 세조 8년(1462년)에는 은계도와 보안도, 상운도, 평릉도의 4개 역로와 이에 소속된 79개의 역으로 개편되었다.

이러한 4개의 역로를 포함하는 강원권에는 전국적인 간선도로망에 해당되는 9개 역로 중 2개가 통과하였다. 하나는 제2로로서 한양에서 양주와 포천을 거쳐 철원, 김화, 금성, 회양을 거쳐 함경도 쪽으로 가는 길이며, 다른 하나는 제3로로서 한양에서 양평과 여주를 지나 원주, 횡성, 진부, 강릉, 삼척을 거쳐 평해에 이르는 길이다. 이와 같은 강원권 역로의 주요 지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김창수, 1974).

당시 전국의 도로망은 모두 한양으로 연결되어 대로, 중로, 소로로 구분되어 있었다. 조선 중기까지 강원권의 역로 중에서 제2로의 포천~회양 사이가 중로였으며, 나머지는 모두 소로였는데, 조선후기에는 중로 이상의 역로가 상당히 연장되어 있었다(유재춘, 1995).

위와 같은 경로를 거시적으로 보면, 제2로는 대략 동쪽의 북한강 유역과 서쪽의 임진강 유

역의 분수계 주변을 따라서 달리고 있으며, 제3로는 남한강 유역의 북쪽 가장자리를 통과하는 특징을 나타낸다. 결과적으로 두 도로는 유량이 많은 하천 본류에서 비교적 멀리 떨어진 지점들을 통과하여 전통시대에 도로의 장애물이었던 큰 강을 건너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위의 역로 체계에서 보듯이, 고려시대의 역로 체계와 일부 다른 점이 나타난다. 제2로에서 동해안 북부의 흡곡과 고성 사이의 부분이 회양 부근에서 추지령을 넘어 지름길로 연결되어 있는데, 고려시대에는 함경도 안변으로 우회하여 해안을 따라서 연결되었다. 제3로에서도 동해안 중부의 간성과 양양이 인제에서 설악산 북쪽의 고개를 넘어 연결되어 있으나, 고려시대에는 간성이 북쪽의 안변에서, 그리고 양양은 남쪽의 강릉에서 연결되었다. 또한 영월, 평창, 정선의 고원지대는 주로 한양 - 양평 - 원주의 연장선으로 이어지고 있으나, 고

려시대에는 정선, 평창의 경우 강릉을 중심으로 한 명주도 관할이었다. 이것은 고려시대에 비하여 조선왕조가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한양을 중심으로 하여 국토공간을 더욱 효율적이고 통합적으로 지배하고자 했던 전략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역로망은 조선후기 「대동여지도」에 보이는 간선 도로망과 매우 비슷한 것으로 나타난다. 홍천과 인제를 거쳐서 간성과 양양으로 연결되는 고개는 연수령(連水嶺)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곳은 설악산 북쪽이고, 고개 동쪽에 원암이라는 지명이 나타나므로 현재의 미시령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진부령과 한계령에 해당되는 오색령의 두 고개로는 역로가 통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삼척에서 강릉을 거치지 않고 북서쪽에 위치한 백봉령을 넘어 정선을 지나, 한양~강릉간의 간선도로에 위치한 방림으로 연결되는 역로가 새로 조성된 것이 확인된다.

일제시기에는 신작로라는 새로운 도로가 완성되기 시작하였다. 1920년을 전후하여 충주에서 원주와 춘천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조성되었고, 동해안의 남북을 잇는 도로와, 강릉에서 대관령을 넘어 원주 방향으로 가는 도로 등 간선도로망이 건설되었다(김명환, 1995). 또한 경원선 철도가 1914년, 철원에서 분기하는 금강산 철도는 1924년, 안변~양양간 동해북부선 철도는 1937년, 경춘선은 1939년, 철암과 묵호간 영동선은 1940년, 그리고 중앙선 철도는 1942년에 각각 개통되었다. 이 도로와 철도들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와 관련하여 건설된 것이다.

한편 군현 단위로 거두어들인 세곡과 특산물을 수로를 이용하여 수도로 운송하던 조운제도 조선시대에 들어서 중앙집권체제의 강화와 더불어 한층 더 강화되었다. 강원권의 대부분이 한강 유역에 해당되므로 북한강과 남한강, 그리고 많은 지류들의 수로를 통하여 조운이 이루어졌다. 운송 물품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세곡의 경우, 각 지방마다 수로의 중심지에 세곡을 모아서 임시로 저장하던 창고를 설치하여 정해진 기간에 경창인 한양의 용산창으로 운송하였다.

강원권의 세곡은 원칙적으로 3가지 경로를 통하여 경창으로 운송되었다(손승철, 1984). 첫째는 경창으로 직접 운송하는 것이고, 둘째는 춘천의 소양강창에 집결시킨 후에 북한강을 따라서 경창으로 운송하는 것이며, 셋째는 원주의 흥원창에 집결시킨 후에 남한강을 이용하여 경창으로 운송하는 것이었다. 경창으로 직접 운송하는 이른바 경창직할구역은 북서

부에 위치한 회양, 금성, 김화, 철원, 평강, 이천, 안협 등 7개 군현과, 동해안 북부의 흡곡, 통천, 고성, 간성, 양양 등 5개 군현이었다. 또한 소양강창 관할구역은 영서 중부의 춘천, 홍천, 인제, 양구, 낭천 등 5개 군현이었으며, 흥원창 관할구역은 영서 남부의 원주, 횡성, 영월, 평창, 정선 등 5개 군현과, 동해안 남부의 강릉, 삼척, 울진, 평해 등 4개 군현이었다. 그러나 동해안의 군현들은 형식적으로는 세곡의 운송구역이 설정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고려시대처럼 대부분 군사용으로 충당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주로 해로를 이용하였다.

춘천의 소양강창이 설치된 장소는 북쪽의 화천 방면에서 흘러오는 북한강 본류와, 동쪽의 인제 방면에서 흘러오는 소양강이 춘천분지 안에서 합류하는 곳으로서, 이 두 강은 유역면적이 넓을 뿐 아니라, 다우지에 속하여 유량이 많기 때문에, 특히 내륙수로의 요충으로서 조운선이 왕래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구비하고 있다. 원주의 흥원창도 남동쪽의 충주 방면에서 흘러오는 남한강 본류와 원주와 횡성 방면에서 흘러오는 지류인 섬강이 합류하는 곳으로서, 조운의 거점으로 유리한 여건을 지니고 있다. 이 흥원창은 충주의 가흥창을 포함하여 남한강 수로를 이용하던 많은 조운선들 뿐만 아니라, 「택리지」에서도 기술한 바와 같이 조선후기에는 장삿배들이 왕래하면서 외상거래까지 하던 장소였으므로, 소양강창보다 훨씬 더 번성했었다.

이러한 수로를 통해서 세곡 이외에도 강원권에서 많이 생산되던 목재를 위시한 임산물의 반출이 많았고, 반대로 황해안에서 생산된 소금과 수산물 등 생활필수품의 반입이 성하여, 북한강 유역의 화천, 양구, 인제와, 남한강 유역의 영월, 정선, 평창 등의 상류 쪽으로도 수운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택리지」 복거총론 생리조에 기술된 낭천(화천)의 원암촌과, 「대동여지도」에 표시된 인제의 합강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이러한 내륙 수로교통은 일제시기 이후 신작로와 철도 등 새로운 교통망의 건설로 점차 쇠퇴하기 시작하여, 대규모 댐들이 축조되면서 사라지게 되었다.

2) 강원권의 문화

(1) 강원권 농업문화의 지역적 차이

강원권은 한반도의 중부지방에 속하면서도 경기도나 황해도와는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먼저 남북 방향의 거리가 중부지방 전체에 걸쳐 있어 경기도와 황해도에 비하여 유난히 길다. 또한 태백산지의 능선부가 동해 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영동지방은 폭이 좁은 해안평야를 이루고 있는 반면에, 영서지방은 한반도 중,남부지방에서 대표적인 고원지대와 산간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지형적 여건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큰 기후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강원권의 농업문화는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게 되었다.

북쪽의 흡곡에서 남쪽의 평해에 이르는 소위 영동의 9개 군현은 농업생산력이 전국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영동의 아홉 고을은) 땅은 매우 메마르고 자갈이 많아 논에 1말 종자를 뿌려 겨우 10여말을 거둔다. 고성과 통천만이 논이 가장 많고, 땅도 그다지 메마르지 않다. ... 그 다음 삼척은 논에 1말 종자를 뿌려 40말을 수확한다”(「택리지」 팔도총론 강원도). 이처럼 고성과 통천은 논이 가장 많으며, 삼척과 더불어 생산력이 나은 편에 속했다. 이 세 군현이 인조비료가 없던 전통시대에 농업생산력이 컸던 요인은 동해안에서 변성암이나 퇴적암 등의 풍화토가 분포하여 토양의 비옥도가 비교적 높은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다른 지역들은 대개 비옥도가 낮은 화강암 분포지에 해당된다. 그리하여 영동지역에는 어업과 소금 제조를 생업으로 삼는 주민들이 많았고, 비록 땅은 메말라도 부유한 자가 많았던 것이다(「택리지」 팔도총론 강원도).

그러나 영서지방은 영동보다는 조금 나은 편이었다. 「택리지」 북거총론 생리조에 “강원도 서쪽에서 개성부까지는 논에 종자 1말을 뿌려도 소출이 30말을 넘지 못하고, ... 강원도 영동 아홉 고을과 함경도는 땅이 더욱 메마르고 ... ”라는 기술이 보인다. 여기서 강원도 서쪽이란 원주 동쪽에서 대관령에 이르는 소위 영서 고원지대를 벗어나서, 고도가 낮아진 부분으로서, 대체로 춘천~원주를 잇는 선에서부터 서부에 해당되는데, 산간분지가 널리 분포하는 지대로 이해된다. 위 기술에서 보듯, 강원권에서 영동지방이 가장 메마르고, 이보다는 영서 산간분지가 전개되는 지대가 나은 편이며, 논농사도 어느 정도 발달된 셈이다.

조선후기의 이와 같은 강원권의 농업생산력은, 당시 국내에서 가장 비옥했던 것으로 알려진 남부지방의 남원, 구례나 성주, 진주 지역에 비하면, 대단히 낮은 수준이었다. 이 네 지역의 경우, “논에 1말 종자를 뿌려서 80~140말을 거두었다”고 한다(「택리지」 복거총론 생리). 이 네 지역도 동해안의 고성, 통천, 삼척처럼 변성암이나 퇴적암 등의 풍화토가 분포하는 곳이다. 이렇듯 당시 지역 간의 생산력 차이가 토양의 모체가 되는 기반암의 특성과 관련하여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

영서지방에서도 특히 고원지대는 고도가 높아서 기온이 낮을 뿐만 아니라, 일조시간이 짧고, 서리가 일찍 내리는 등 논농사에는 불리하였다. “북쪽은 회양에서 남쪽은 정선까지 모두 험한 산과 깊은 골짜기이며, ... 화전을 많이 경작하고, 논은 매우 적다. 기후가 차고 ...”라는 「택리지」 팔도총론 강원도조의 기술처럼, 조선후기 영서 고원지대에서 논은 매우 적고, 화전경작이 주로 행해졌던 점이 파악된다. 더욱이 태백시 황지 일대는 한층 더 높은 고원지대에서 논은 전혀 없으며, 화전농업으로 밭농사만 행해지고 있었다.

“태백산에는 황지라는 훌륭한 곳이 있다. 산 위에 들판이 펼쳐져 두메 백성들이 제법 마을을 이루었다. 화전을 일구어 살고 있으나, 지세가 높고 기후가 차가워서 서리가 일찍 내린다. 그러므로 주민들은 오직 조와 보리를 심는다.”(「택리지」 복거총론 산수)

이 기사는 영서 고원지대 중에서도 가장 고도가 높은 지역에 관한 것이다. 해발고도가 약 700m인 황지는 대관령 서쪽의 횡계 부근과 비슷한 고도를 보인다. 따라서 고도가 매우 높아서 기온이 낮고, 서리가 일찍 내리므로 논은 전혀 없으며, 주민들이 화전에서 조와 보리만 재배하고 있었던 점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조선후기 강원권의 농업문화는 4개의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첫째, 생산력이 가장 낮은 곳은 영동지방이었는데, 그중에 북쪽의 고성과 통천이 나은 편이었고, 논도 많았다. 둘째, 영서지방의 경우, 산간분지가 널리 분포하는 서부는 영동지방보다는 더 비옥하고, 논농사가 어느 정도 발달한 편이었다. 셋째, 회양에서 정선에 이르는 동부의 고원지대에는 논이 매우 적고, 화전이 많이 행해졌으며, 넷째, 황지나 횡계와 같이 가장 높은 고원지대에는 논이 전혀 없는 상태였으며, 화전 중심의 밭농사만 전개된 상황이었다.

이렇듯 「택리지」에서도 조선후기 강원권 농업문화의 지역적 특징을 밝히는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이 된 것이 바로 논농사였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농업문화에서 논농사가 지니는 중요성이 그만큼 큰 것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쌀은 다른 어느 곡물보다도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많은 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Grigg, 1978). 그러므로 쌀은 우리의 농업문화에서도 선호의 대상이 되어, 특히 조선 초기부터 논농사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해온 것이다(이준선, 1989). 말하자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갈수록 그 희소가치가 컸으므로, 이른바 ‘귀족 곡물’의 지위를 누려온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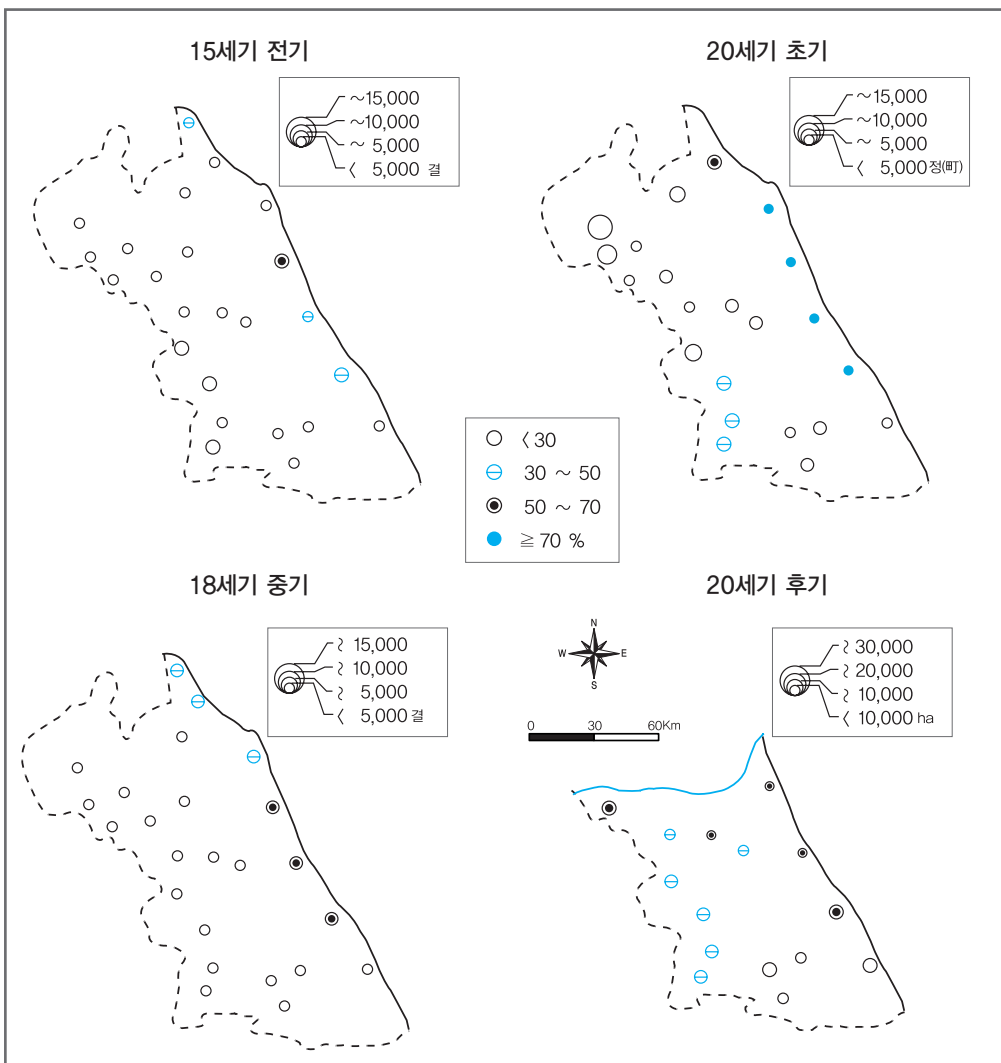
그러나 「택리지」의 지적과 같이 강원권의 지리적 환경은 그토록 귀중한 곡물을 생산하는 논농사의 발전에 그다지 적합하지 않았다. 따라서 고원지대는 말할 것도 없고, 산간지대도 조선시대에 논농사가 매우 제한되어 있어, 강원권은 한반도 중,남부 지방에서 논농사의 비중이 가장 작은 곳이었다. 강원권 논농사의 변천과정을 파악하기 위해서 [표 1-7]의 자료를 토대로, 군현별 경지면적 중에서 논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여 지도화한 것이 <그림 1-3>이다.

먼저 15세기 전기에 강원권에서 군현별 경지면적 중 논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넘는 곳은 간성과 평해 뿐이고, 그 다음으로 강릉과 양양, 흡곡, 울진이 30%를 초과하였다. 나머지는 모두 30% 미만인데, 이들은 다시 군현별로 대단히 큰 차이를 나타냈다. 동해안의 고성, 통천, 삼척은 12~28%를 보여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그리고 원주와 횡성이 10~20%였다. 나머지 15개 군현 중 10개가 3% 미만에 불과하였다. 이 가운데 정선은 1결, 회양 7결, 영월과 이천이 각각 8결 등 1% 이하의 군현이 8개나 되었다. 이 군현들은 대개 고원지대나 산간분지에 위치하여 논농사가 전파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곳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논 면적 비율은 동해안에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영서지방 서부의 원주와 횡성 부근이었다.

18세기 중기에는 동해안의 군현들이 대부분 30%를 넘고, 강릉과 양양이 50%를 초과했다. 그리고 영서의 횡성이 30%를 넘었으나, 나머지는 모두 미약한 증가에 그쳐서, 30%에 미달하였다. 아직도 3% 이하의 군현이 7개나 되고, 1% 이하의 군현이 4개에 달했다.

20세기 초에는 동해안의 대부분 군현이 50%를 넘은 가운데, 강릉, 양양, 간성, 평해는

70%를 초과하여 논농사 특화지대를 이루었다. 반면에 영서의 원주, 횡성, 홍천은 30%를 넘어섰고, 나머지 군들은 대개 20% 내외를 보여 비교적 큰 증가를 한 셈이다. 그러나 회양, 금성, 이천, 안협의 북부 고원지대나 산간분지, 그리고 정선은 3~6%를 나타내어 미약한 증가를 보였다. 따라서 강원권의 논농사 발전과정에서 영동과 영서지방은 극적인 대조를 이루는 상황이었고, 영서에서도 북부와 남부 사이에는 뚜렷한 차이가 드러났다.



〈그림 1-3〉 강원권의 군현별 논 면적 비율의 변천

20세기 후반에는 북한의 자료가 없어서 휴전선 남부에 국한시켜 시군별 논 면적 비율을 지도화 하였다. 동해안의 시군들은 50~60%를 나타내고 있어서 20세기 초에 비하여 그 비율이 대략 10~20%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논 면적의 절대면적의 감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인구증가에 따라서 논 면적과 함께 밭 면적도 늘어남으로써, 논 면적의 상대적 비율이 줄어든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영서의 시군들은 크게 증가하여, 대부분이 30%를 초과하였다. 특히 철원과 양구는 50%를 넘어섰는데, 철원의 경우 70%에 접근하여 최대의 증가폭을 보였다. 나머지 시군들은 대개 30~40%를 나타냈으나, 다만 영월, 평창, 정선 등 고원지대는 10~20%를 보여 논농사 발전과정에서 가장 후진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따라서 동해안과 영서의 북서부가 논농사 지대인 셈이며, 영서 남부의 고원지대가 밭농사 지대, 그리고 중서부가 논밭 혼합지대를 형성한 것이다.

강원권에 인접한 경기도의 경우, 삼남지방보다는 뒤떨어지지만, 20세기 초에 이미 논 면적의 비율이 평균 50%를 넘어섬으로써 훨씬 일찍이 논농사가 발전하였다. 그러나 강원권은 지역에 따라 조선후기, 혹은 산미증식계획이 시행된 1920년대를 거치며 불리한 자연환경을 최대한 극복하면서, 식량자급을 위하여 가능한 데까지 논농사를 확대, 발전시켜 왔다. 결국 강원권의 논농사는, 아열대 지역에서 기원한 벼의 특성상, 남쪽에서 북쪽, 그리고 저지대에서 고원지대를 향하여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온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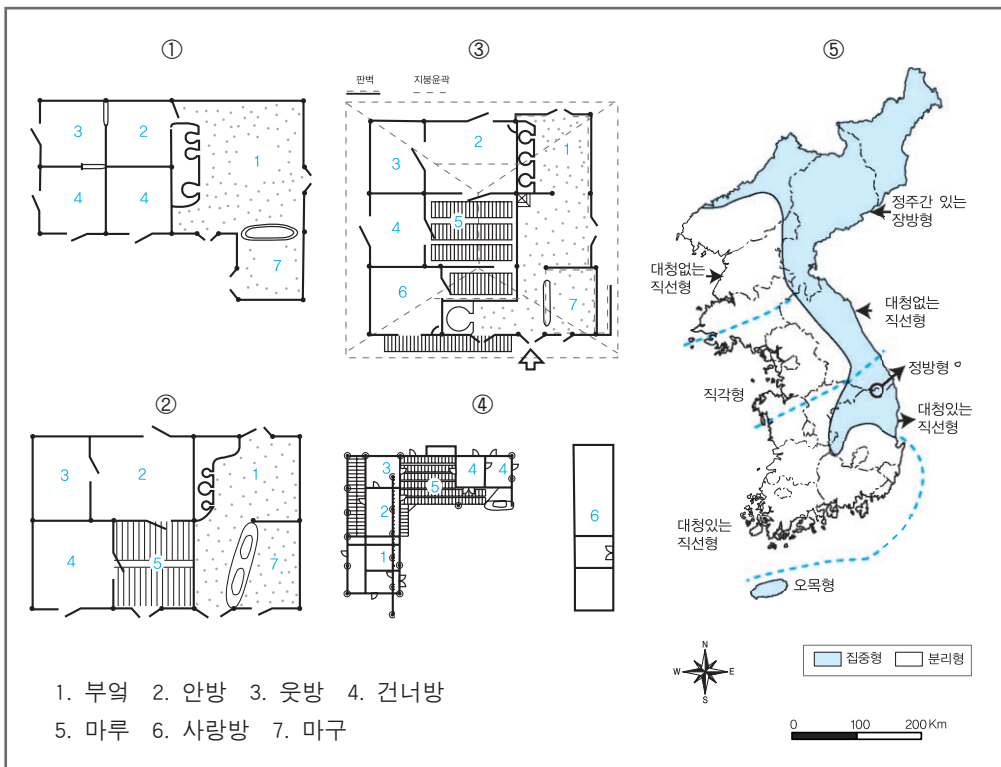
(2) 강원권의 다양한 민가 유형과 그 분포

일반 백성들의 전통적인 살림집에 해당되는 민가는 지역적으로 다양한 모습을 지니고 있어 지역적 특징을 잘 드러내는 경향이 있다. 지리적 환경이 다양한 강원권에는 다른 도에 비하여 민가의 유형도 여러 가지로 나타나므로, 민가는 강원권의 문화적 특징을 표현하는 주요 요소가 된다.

민가의 평면구조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강원권은 1차적으로 곁집(집중형)과 홑집(분리형)이 나타나는 두 지역으로 나뉜다. 이것은 한 지붕 밑에 부엌이나 방, 마루, 외양간 등 민가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이 집중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영동 지방과 영서 고원지대의 대부분은 집중형인 곁집 유형이 분포하는 곳이다. 반면에 영서지

방의 서부, 즉 춘천~원주를 잇는 선에서부터 서쪽에는 분리형인 홑집 유형이 나타난다(〈그림 1-4〉의 ④ 참조). 영동지방의 겨울 기후는 경기지방에 비하여 더 온난함에도 불구하고, 그 민가 유형은 한랭한 함경도 쪽의 겹집 형태를 나타낸다. 이것은 신석기와 청동기시대 이래 함경도 쪽에서 동해안 통로를 따라 동북부의 문화가 전파되어온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된다.

겹집 유형은 다시 장방형과 정방형으로 구분된다(〈그림 1-4〉의 ① ② ③ 참조). 장방형은 강릉과 삼척 사이를 경계로 또다시 대청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나누어진다. 강릉 쪽인 북부에는 마루가 없으나, 삼척 쪽인 남부에는 대개 마루가 조성되어 있다(이준선, 1992). 강릉 쪽 민가 유형은 마루가 없는 함경도 방향의 민가, 그리고 삼척 쪽 유형은 마루가 설치된 경상북도 북부의 민가에 이어진다. 이것은 남북간의 기온 차이를 반영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1-4〉 강원권의 민가 유형과 그 분포

자료 : 정보웅, 1980, "한국의 민가형 분포와 문화지역 구분" ; 이준선, 1992, 한국민가 유형화에 관한 검토.

한편 정방형은 지붕의 용마루와 민가의 주출입구 방향이 직각을 이룬다고 하여 ‘측입형’으로도 불리는 민가이다(장보웅, 1980). 이 민가는 현재 삼척시의 산간지대인 도계읍 신리와 원덕면 동활리에 국지적으로 분포하는데, 신라 가형토기(家形土器)의 특징과 연관지어 볼 때, 과거에는 더 넓은 지역에 분포했었으나, 장방형 민가가 전파되면서 점차 잠식되어 화석처럼 일부가 남은 것으로 알려진다.

마지막으로 영서지방에서 고원지대를 제외한 서부에는 흙집 중에서도 ㄱ자형, 혹은 ㄴ자형이라고도 불리던 직각형의 민가가 나타난다(<그림 1-4>의 ④참조). 이 민가는 중국의 양쯔강 하류 지역(강소성과 절강성)으로부터 수도인 서울에 전파된 후, 경기지방 일대로 확산된 것이지만, 그 전파 시기는 앞으로 연구해야 할 과제라고 한다(장보웅, 1980). 이렇듯 이 유형이 중국 강남지방에서 전파되어온 것이라면, 그 시기는 고려 후기 경으로 파악된다. 강남지방은 고려후기에 우리나라에 도입된 성리학을 위시하여 이양법이나 보(洑) 같은 관개 시설 등 당시로서는 새로운 벼농사 기술의 기원지였다(이태진, 1979). 그래서 당시 충선왕은 물론, 이재현, 권한공 등 고려의 많은 지식인들이 강남지방을 여행하면서 이 지방의 새로운 문물 수입에 열의를 보였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 지방의 민가 유형도 고려의 지식인들이 선진지역의 새로운 문화의 도입과정에서 간과하기 어려웠던 요소 중의 하나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 직각형 민가는 고려후기 무렵 새로운 사회규범이었던 성리학, 그리고 논농사의 신기술과 함께 경기지방으로 확산되면서 점차 자연스럽게 강원권 서부까지 전파되어간 것으로 판단된다.

(3) 강원권의 방언 지도

전통문화의 주요 구성요소인 방언을 기준으로 볼 때, 강원권은 크게 영동방언권과 영서방언권으로 나뉜다. 이것은 남북 방향으로 길게 뻗은 태백산지가 지리적인 장애 내지 분계선으로 작용하여 방언의 분화를 초래한 결과이다. 실제로 왕겨, 시래기, 두레, 누룽지 같은 어휘들의 등어선(等語線)은 태백산지 줄기의 흐름과 거의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이다(이익섭, 1981. 이하 방언에 관한 내용은 이익섭, 1981, “영동, 영서의 언어 분화”를 참조함).

무우청을 새끼로 엮어 말렸다가 국에 넣어먹는 시래기의 경우, 영서지방에서는 시래기,

씨래기로 나타나는 것과 달리, 영동지방에서는 건초(乾草)에서 기원한 건추로 나타난다. 또 누룽지의 경우, 영서지방에는 누룽기, 누렁지로도 나타나지만, 영동지방에서는 소쟁이, 소썰, 소디끼 등으로 나타나 영동과 영서의 두 방언권으로 확연하게 구별된다. 나머지 왕겨나 두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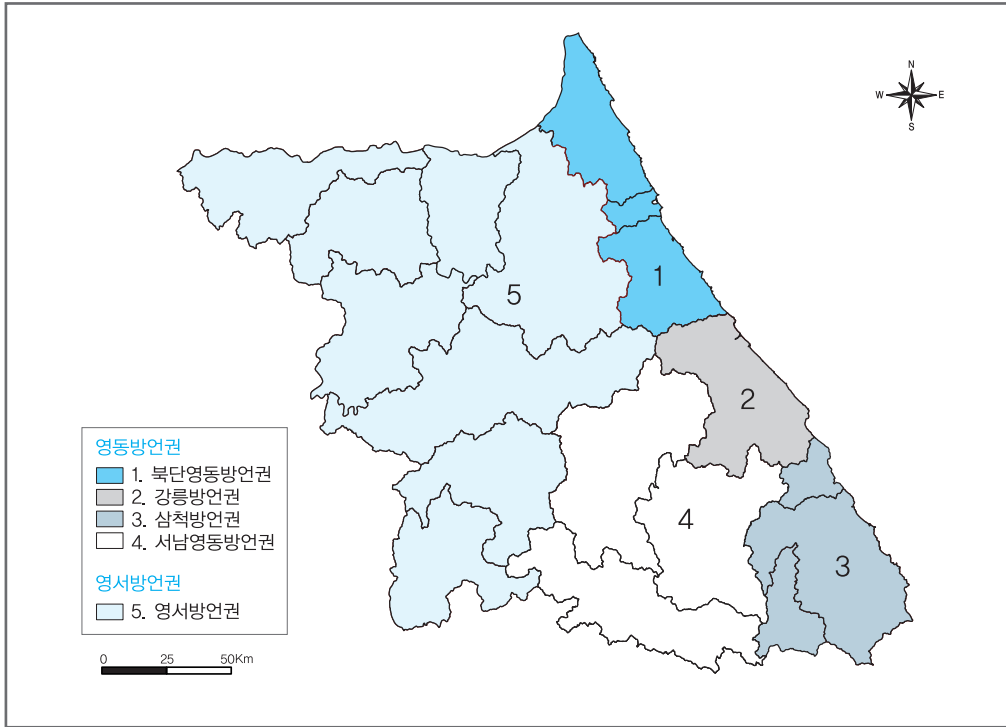
그러나 이러한 방언의 분계선이 완벽하게 태백산지 줄기와 일치하지는 않는다. 특히 평창, 정선, 영월 일대가 지형적으로는 영서지방에 속하면서도, 방언의 형태는 영동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아 영동방언권에 포함된다. 따라서 강원권의 방언 지도를 그리면, 영동방언권은 태백산지를 넘어서 영서의 남동부까지 확장되어 나타난다(<그림 1-5> 참조).

이와 같이 강원권의 방언을 영동방언권과 영서방언권으로 양분했을 경우에, 영서방언권은 비교적 동질적인 반면에, 영동방언권은 그 내부에서 방언상의 심한 차이를 드러낸다. 그리하여 영동방언권은 다시 북단영동, 강릉, 삼척, 그리고 서남영동 등 4개의 하위 방언권으로 나뉜다.

첫째, 북단영동방언권은 동해안 북부인 고성과 양양 지역으로서, 남쪽의 강릉지역과 공통되는 점이 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구별된다. 쟁기를 엔장으로, 극쟁이를 가데기로 나타내고, 성조(聲調)가 없는 것 등이 강릉지역과 구별되는 점이다. 이 방언권은 함경도 방언의 요소를 상당히 가지고 있는데, 가데기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둘째, 강릉방언권은 과거의 명주군 영역을 포함하는 현재의 강릉시 일대로, 방언의 여러 특징들에 의해서 북부의 양양이나 남부의 삼척 지역과는 구별되어 독자성이 큰 방언권을 형성한다. 예를 들면 새총(고무총)이 느르배기로, 곤지곤지가 장개장개로, 아재가 여자만을 가리키는 것, 주격조사 ‘가’가 ‘거’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강릉 특유의 형태들은 어느 주변 지역으로도 이어지는 것들이 아니다.

셋째, 삼척방언권은 삼척시 일원으로, 여기서도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방언 형태들이 상당히 발견된다. 예를 들면, 인두가 윤두로, 철쪽꽃이 개꽃으로, 딸꾹질이 패띠기로, 쌀을 튀긴 튀밥이 쌀포데기로 나타난다. 이 방언권은 경상북도 울진의 방언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림 1-5〉 강원권의 방언 지도
 자료 : 이익섭, 1981, "영동영서의 언어분화," 서울대학교.

넷째, 서남영동방언권은 영서지방의 평창, 정선, 영월 일대로서, 영동 방언과 영서 방언의 요소들이 뒤섞여 나타나는 일종의 '점지역'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이 방언권은 영동방언권 중에서 영서 방언의 요소들을 가장 많이 지니고 있다. 평창군의 방림과 평창읍, 영월군의 주천과 수주 등이 그러한 경우이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영동 방언의 특징이 우세하며, 평창군의 도암, 진부, 봉평, 대화와 정선군의 임계는 특히 강릉 쪽으로 크게 이끌리는 지역이다. 이러한 현상은 강릉 지역이 고대 이래 고려와 조선시대를 거쳐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영동지방의 중심지적 지위를 유지한 가운데, 주변 지역에 대한 견인력을 발휘해온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방언권 가운데 강릉권과 삼척권의 분계선이 앞의 민가 유형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강릉의 마루가 없는 장방형과 삼척의 마루가 있는 장방형의 경계선과 일치하여 흥미롭다.

3. 일반적 현황과 성격

1) 강원권의 발전양상

1960년대 초에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기치아래 본격적으로 시작된 우리나라의 경제개발은 국토공간에 괄목할만한 변화를 가져왔다. 대규모의 산업단지와 댐을 위시하여 현대적인 주택단지와 교통시설 등을 조성함으로써, 산업화와 도시화가 동시에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개발과정에서 집중적인 투자의 혜택을 가장 먼저 누리게 된 수도권이나 영남권에 비하면, 강원권은 절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다. 더욱이 나머지 충청권이나 전라권에 비해서도 훨씬 더 소외된 강원권은, 수도권의 동쪽에 인접한 권역이면서도 호남권의 이른바 푸대접을 넘어 무관심의 대상이었다고 해야만 할 것이다.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1, 2차 기간인 1960년대에 강원권에서는 산업의 원동력인 춘천댐과 의암댐이 준공되었고, 소양강댐은 1970년대에 준공되었다. 이러한 댐들은 다목적댐으로서 춘천 일원을 호반 관광도시로 개발하여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하여 축조된 것이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오히려 이 시설들은 이 지역의 기후와 생태계 등에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주기도 하고, 주변 지역이 수도권의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서 개발에 큰 제약을 가하는 족쇄가 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한국전쟁 이후 휴전선이 강원권을 동서로 관통하게 되어 군사보호시설구역들이 도처에 들어서게 되면서 대규모 개발은 엄두도 내지 못하게 되었다.

또한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에 걸쳐 태백산지구의 석탄과 증석 등의 지하자원 개발과 관련하여 영동선과 이어지는 여러 지선 철도들이 건설되었고, 1970년대에는 이 철도들이 전철화 되었다. 그리하여 태백산지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인구의 집중이 이루어져 활기가 넘쳤다. 그러나 1980년대에 이르러 이 지역의 주력산업인 석탄산업이 사양화되면서 한동안 주민들의 소요사태가 발생하였다. 그 후 대체산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인구는 급속도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태백시의 경우 시급 기준 인구인 5만 명을 유지하기도 힘들어 정도로 상황은 반전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롯된 위기를 타개하려는 정책적 방안으로 강원랜드 등의 사업체가 입지하였으나, 그 효과는 여의치 못하다.

1970년대에 영동, 동해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비로소 강원권의 고원지대와 산간지대가 밭농사를 기반으로 하던 전통적인 토지이용 단계를 벗어나게 되었다. 대관령 일대의 고원지대에 상당한 규모의 산지 목장이 조성되었고, 평야지대와 차별화되는 기후를 이용하여 여름철 채소를 재배하는 고랭지 농업지대가 형성되었다. 한편 이 고원지대의 남단에는 스키장과 골프장 등 용평 리조트 시설이 들어서게 되었으며, 동해안 일대의 해수욕장과 설악산을 위시한 여러 산들이 관광지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1990년대에는 춘천~대구간의 중앙고속도로가 개통되었으며,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영동, 동해 고속도로는 4차선으로 확장되어, 수도권과 영남권에의 접근성은 엄청나게 향상되었으나, 이것이 오히려 생산연령층의 전출을 가속화하여 인구를 감소시킴은 물론, 발전 잠재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강원권의 침체현상은 20세기 후반의 인구변화의 추이에서 명백하게 드러난다. 1960년에 163만 7,000명이던 강원권의 인구는, 2000년에는 148만 7,000명으로 15만 명의 절대감소와, 9% 이상의 감소율을 보여, 호남권과 함께 대표적인 인구 감소지역이 되었다([표 1-8] 참조). 또한 같은 기간에 전국 인구에 대한 강원권 인구의 비중은 6.5%에서 3.2%로 크게 감소하였다. 강원권의 이처럼 심각한 인구 감소현상은 우리나라 상위 20개 도시의 순위 변화에서도 잘 드러난다. 1946년에 상위 20개 도시 중에 14위로 유일하게 포함

[표 1-8] 강원권의 인구수와 인구비중 추이

(단위 : 1000명, %)

권역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인구수	비중	인구수	비중	인구수	비중	인구수	비중
전국	30,882	100.0	37,436	100.0	43,520	100.0	46,136	100.0
수도권	8,730	28.3	13,298	35.5	18,601	42.8	21,354	46.4
충청권	4,262	13.8	4,380	11.7	4,504	10.2	4,680	10.1
호남권	6,319	20.4	6,068	16.2	5,737	13.2	5,240	11.4
영남권	9,376	30.4	11,436	30.5	12,571	28.9	12,861	27.9
강원권	1,837	5.9	1,791	4.8	1,592	3.6	1,487	3.2
제주도	358	1.2	463	1.2	515	1.2	513	1.1

자료 : 통계청, 각년도, 인구 및 주택 총조사보고서.

되었던 춘천이, 1975년에 16위로 떨어지고, 1990년대 이후로는 여기에 포함되는 도시가 없을 정도이다(도시연감, 2001). 춘천, 원주, 강릉 등 강원권 대표 도시의 인구는 미미한 증가에 그쳐, 3개 도시 모두 20만 명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비도시 지역의 경우, 특히 산간지대에서는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면소재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초등학교가 폐교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인구 전출이 더욱 촉진되는 등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1-9]는 2000년도 강원권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경제력의 위상을 여러 지표를 통하여 비교한 것이다. 먼저 전국 총량 경제력의 53%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영남권이 27%를 차지하여 위 두 권역이 전국의 80%를 점유하는 상황이다. 나머지 20% 중 충청권과 호남권이 17% 이상을 차지한다. 강원권의 경우, 7개 분야 가운데 도소매업 고용 및 경제활동 인구는 그 중요성이 떨어지므로, 이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분야에서 2% 미만에 불과하다. 이것은 3.2%인 인구비중에 비교해 보더라도 훨씬 낮은 상태이며, 그중에서도 수출 분야는 존재 의미가 없을 정도이다.

[표 1-9] 강원권의 경제력 위상

(단위:%)

권역	지역내 총생산*	제조업 고용*	도소매업 고용*	금융거래	경제활동 인구	수출	조세수입	합계
전국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700.0
수도권	46.3	45.3	47.5	66.8	46.4	45.0	70.9	368.2
충청권	10.6	10.1	9.5	5.5	10.0	13.1	5.2	64.0
호남권	7.3	7.3	10.7	6.4	11.2	6.9	4.6	57.9
영남권	35.9	35.9	27.1	18.9	28.1	4.8	17.3	190.6
강원권	2.6	1.2	3.7	1.6	3.1	0.2	1.4	13.8
제주도	1.0	0.2	1.5	0.8	1.3	0.0	0.7	5.5

주 : 1) 인구는 주민등록인구 기준 : 제조업고용은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기준 : 도소매업고용에는 음식숙박업이 포함됨 : 금융거래규모는 예금은행 예금액과 대출액의 합계 기준 : 조세수입은 국세(직접세)와 지방세의 합계 기준임.

2) *는 1999년 자료 기준임.

자료 : 박양호, 2001, "지역불균형 실태와 새로운 균형발전전략".

2) 강원권의 발전 잠재력과 제언

1960년대 이래 우리나라의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강원권도 어느 정도 발전의 모습을 보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강원권은 수도권에 인접해 있으면서도 북쪽에 휴전선이라는 폐쇄적 장벽이 드리워져 있고,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어지는 발전의 축에서 벗어나 개발의 사각지대로 남겨진 셈이다. 그리하여 강원권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KTX(한국고속철도)를 구경할 수 없는 곳으로, 대규모 산업단지나 국내 50개 대기업의 본사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렇지만 이 권역이 발전 잠재력마저 없는 것은 아니다.

강원권이 지니고 있는 잠재력은 무엇보다도 여타 권역과 확연하게 차별화될 정도로 수려하면서도 청정한 자연환경이다. 특히 “영동의 아홉 고을은 이름난 호수와 기이한 바위가 많아, 높은데 오르면 푸른 바다가 넓고 멀리 아득하게 보이며, 골짜기에 들어가면 물과 돌이 아늑하여 경치가 나라 안에서 참으로 제일이다”라는 「택리지」의 기술처럼, 소위 관동8경으로 알려진 명승지가 강원권의 동해안을 따라 줄지어 있다. 이들은 대개 해변의 호수와 누정을 중심으로 맑고 푸른 바다와 해수욕장, 그리고 금강산에서 설악산, 태백산으로 연결되는 웅장 수려한 명산, 석회암 지대의 동굴, 온천 등과 어우러져 특화된 관광자원으로서, 앞으로 여가시간의 확대 추세와 더불어 강원권의 발전을 선도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천혜의 자산이다.

또한 강릉의 단오제는, 천년의 세월을 이어온 강원권의 대표적 전통문화유산으로서, 최근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지역 발전의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이외에 춘천의 인형극과, 삼척의 세계 동굴축제를 위시하여, 평창의 메밀꽃, 태백의 철쭉꽃, 철원과 화천, 양구 등 휴전선 접경지역의 안보와 관련된 축제들이 개최되면서, 각 지역은 고유한 지역적 특성을 활용하여 새로운 관광산업을 개발하고 있다.

이외에도 강원권에 새로 조성되는 지방과학산업단지와 관련하여 지역 간 주력산업의 차별화를 목표로 계획된 원주의 의료기기산업이나, 강릉의 신소재 해양, 생물 산업 등 지역전략 산업을 육성하려는 계획이 산업체와 대학, 연구소 협력체제하에 본격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동해항이나 속초항 등은 이미 실현되기 시작한 금강산이나 백두산 관광 등에서 보듯, 환동해권 관광, 물류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려는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강원권의 이러한 발전 잠재력이 의도한 대로 개발되기 위해서는 먼저 교통망 확충이 필요하다. 수도권에서 영서 고원지대나 영동지방에 이르는 고속도로는 현재 영동고속도로가 유일한 것이어서, 여름 휴가철은 물론, 연휴가 낀 주말이면 심한 정체현상을 보인다. 이 고속도로와 같은 방향으로 이어지는 국도는 아직도 굴곡이 심하고 좁아서 대체도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또한 철도의 경우, 경춘선은 단선이며, 영동선은 남쪽으로 크게 우회하므로 이용하는 관광객은 한정되어 있다. 더욱이 영서 고원지대의 남북 방향 도로는 더욱 열악한 상태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서울~홍천~양양으로 이어질 제2영동고속도로와, 간선 국도들의 확충 및 포장 공사는 수도권을 위시한 전국과 강원권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강원권의 잠재력을 한층 더 크게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강원권이 입지여건상 앞으로도 휴전선이나, 대규모 댐,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국토공간에서 피할 수 없는 공공 목적의 여러 시설을 수용해야만 한다면, 다른 권역처럼 대규모 산업단지의 개발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강원권 주민의 불가피한 희생에 대하여 중앙정부는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 대책을 강구해야만 한다. 이 권역의 청정한 자연 유산을 지속적으로 보전하면서도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육성하여, 주민들의 소득수준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도출하고 집행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당연한 책무이다. 희생의 교대가 필요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도 강원권의 전국 대비 생활환경 지표를 나타내는 [표 1-10]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강원권의 전국 대비 인구 비중이 3.2%인 점을 감안하면, 특히 의료보건 및 상, 하수도, 도로포장 등의 분야에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개선이 요청된다. 그동안 공공 목적을 위한 개발 유보라는 명분아래 희생을 강요당해온 강원권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주민 자신과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은 물론, 특히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이고도 지속적인 정책적 배려와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표 1-10] 강원권의 전국 대비 주요 사회지표

구분		전국	강원권	전국대비 비중
주택	가구수	천가구	15,765	
	주택수	천호	10,959	419
	주택보급률	%	69.5	3.8
의료 보건	병원수	개소	20,338	563
	병상수	개소	287,401	11,302
	의사수	인	72,306	2,189
도시 공원	공원수	개소	10,849	694
	공원면적	천㎡	1004,452	44,080
	1인당 공원면적	㎡	21.5	
도로	도로연장	km	88,775	7,851
	도로포장률	%	75.8	69.4
	1인당도로연장	m	1.9	
상수도	상수도보급률	%	87.1	79.9
	시설용량	천톤/일	26,980	733
	급수량	천톤/일	15,883	461
	1인당 1일 급수량	ℓ	380	370
하수도	공공하수처리인구	천인	35,368	760
	하수도보급률	%	73.2	52.8
사회 복지 문화	생활보호대상자수	인	1,502,869	
	사회복지 시설수	개소	606	26
	문화공간수	개소	1,555	69
교육	대학수	개소	162	8
	학생수	인	1,729,638	79,869
	교수수	인	43,309	2,492

자료 : 통계청, 2002, 지역통계연감.

